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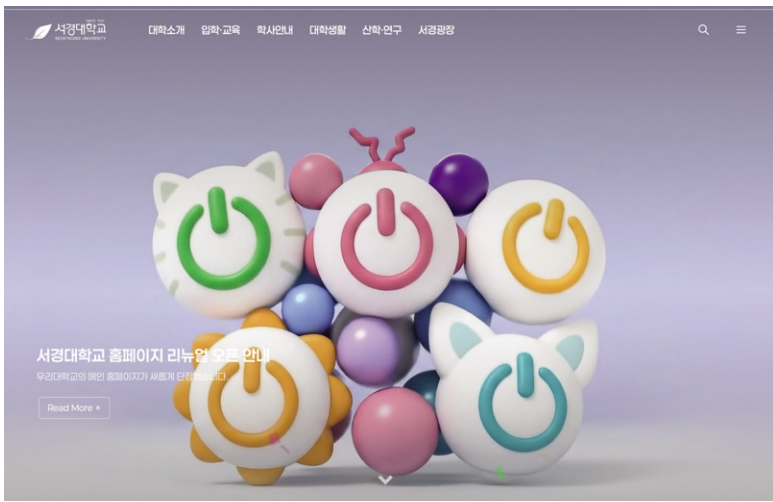
사회 >> 3면
 APEC 이후 한국, 글로벌 경제·외교 중심으로 부상

기획 >> 6면
 청년을 노리는 취업사기의 뗏... 취업 미끼 속 잇따른 피해

현장르포 >> 7면
 지역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제595호
 2025년 12월 2일(화)

“우리대학 새 보금자리로” 메인 홈페이지 재단장...11월 3일 오픈



모던 UI/UX · 접근성 확대 등 사용자 경험 전면 개선

우리대학이 2012년 이후, 13년 만인 11월 3일(월) 18시에 메인 홈페이지가 재단장됐다. 이번 재단장은 밝고 활기찬 화면과 사용자 중심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소(https://www.skuniv.ac.kr)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한다.

이번 재단장의 핵심은 모던 UI/UX 디자인과 사용자 개선이다. 직관적이고 세련된 시각 요소로 구성했다. 킷 메뉴를 배치해 길잡이 역

할을 강화하고, △주요 기관 △주요 서비스 △교직원 △방문자 △재학생 등 이용자별로 분류해 빠르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콘텐츠별로 명확한 아이콘과 여백을 뒤 정보 밀도를 조절했다.

모바일 최적화와 반응형 웹을 구현한 점도 핵심 개선 사항이다. PC·태블릿·모바일 등 모든 환경을 지원하며, 기기별 환경에서 일관된 경험을 제공한다. 최신 웹 기술을

적용해 페이지 로딩 속도를 개선했고 이에 따라 주요 페이지 접근 시간도 단축됐다.

정보 접근을 할 때 중요한 통합 검색 기능도 강화됐다. 일반·학사·장학·진로 취업 공지 등 서로 다른 영역 결과를 한 화면에서 탐색할 수 있도록 결과 분류 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검색할 때 키워드 형식으로 추천 검색어도 제시한다.

동영상·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콘

텐츠를 적극 활용해 소식을 풍부하게 전달하고, 한국어·영어·중국어·일본어·베트남어까지 총 5개 언어 지원으로 유학생과 해외 방문자도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우리대학은 웹 접근성 지향 설계를 강조했다. 학생, 교직원, 방문자 맞춤형으로 편리한 내비게이션을 보완해 다양한 환경에서 원하는 정보를 빠르게 얻을 수 있도록 했다.

브랜드 가치 측면에서는 현대적이고 역동적인 이미지를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우리대학의 모습을 반영했다. 색상 체계와 아이콘, 사진

스타일을 일관되게 적용해 학교 정체성을 강화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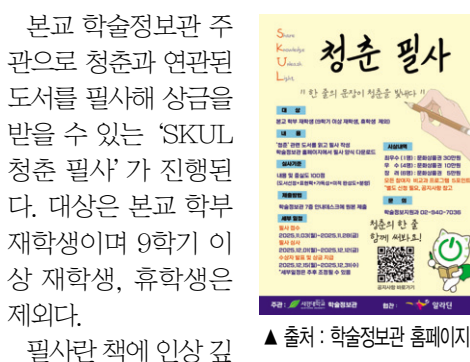
정보전산원은 재단장 홈페이지에 대한 많은 이용과 관심을 당부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유지·보수와 개선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단장 홈페이지에 대한 의견은 webmaster@skuniv.ac.kr로 접수한다. 정보전산원은 제안된 의견을 적극 검토해 반영할 방침이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필사하고 문화상품권 받자!

본교 학술정보관 'SKUL 청춘 필사' 진행



본교 학술정보관 주관으로 청춘과 연관된 도서를 필사해 상금을 받을 수 있는 'SKUL 청춘 필사'가 진행된다. 대상은 본교 학부 재학생이며 9학기 이상 재학생, 휴학생은 제외다.

필사란 책에 인상 깊은 구절이나 문장을 옮겨 적고, 그것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경험을 작성하는 행위다. 'SKUL 청춘 필사'는 강의를 제공해 필사를 처음 접하더라도 쉽게 참여할 수 있다.

프로그램 일정은 세 단계로, 11월 3일부터 11월 28일까지 필사 접수 후 12월 1일부터 12월 12일까지 심사를 진행한다. 이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상자 발표와 상금 지급이 예정돼 있다.

필사 심사는 100점 만점으로 △도서 선정(20점) △표현력(20점) △가독성(20점) △미적 완성도(20점) △분량(20점)으로 심사한다. 동점자 발생 시 표현력, 도서 선정,

가독성, 시각적 완성도, 분량 순으로 우선 선발한다. 필사시 대출 횟수와 좌석 발급 등 학술정보관 이용률로 선발할 수 있다. 상금은 △최우수(1명) 30만원 △우수(4명) 10만원 △장려(6명) 5만원으로, 11명에게 문화상품권을 증정한다.

상금 외에도 모든 참가자는 서경포탈 비교과 프로그램 신청 및 참여에서 'SKUL 청춘 필사'를 신청해 비교과 포인트 5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다.

참가 신청서와 작성 양식, 안내 사항은 본교 학술정보관 사이트 공지 사항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출은 양식에 따라 작성한 필사 원본을 본교 학술정보관 7층 안내데스크에 제출하면 된다. 상세 사항은 학술정보지원과(02-940-7036)로 문의하면 된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빙판 위,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는 대학생 스케이터를 만나다

신문사로 '2025 서울특별시빙상경기연맹 회장배 피겨스케이팅 대회' 여자대학부 1위 수상 제보가 들어왔다. 본인을 만나 제보 이유를 물어보자 "신문사 자체에 대한 호기심으로 제보했다"며 "이런 학생과 학교 소식이 있다는 걸 알고 싶었다"고 말했다. 엉뚱하지만 진솔한 대답이었다. 그렇게 스케이팅 날로 자신만의 궤적을 그리는 공지윤(미음125) 학우와의 인터뷰가 시작됐다.

Q.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A. 안녕하세요, 서경대학교 미래융합학부1에 재학 중인 피겨스케이팅 공지윤입니다.

Q. 피겨스케이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초등학교 때 '프리즘스톤'이란 피겨 애니메이션을 보고 부모님께 아이스링크장에 가자고 졸라서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Q. 인스타 프로필에 Actor도 적혀 있는데, 배우 활동도 하는 중인지?
 A. 고등학교도 연기 전공으로 졸업했고, 중학교 때부터 배우와 피겨를

병행했는데요. 대학 진학 후 다시 스케이팅을 타게 돼서 지금 배우 활동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피겨와 연기는 좀 맞닿은 부분이 있어서 할 수 있다면 하고 싶어요.

Q. 대학에서 피겨를 다시 시작하게 된 계기는?
 A. 동아리 알림제 때 동아리 체험으로 정말 오랜만에 인라인을 신었는데 익숙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먼저 인라인 피겨를 다시 시작하고 그 뒤 스케이팅을 시작했습니다. 원래 그만둔 이후로 링크 근처에도 안 가고 일부러 관련 경기도 피하고 이에 다른 분야를 하려고 했었어요. 심적으로 힘들어서 다시 취미로라도 할 용기가 안 나는 상태였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인라인을 신어본 게 신의 한 수 같습니다.

Q. 1위 수상 소감과 가장 먼저 떠올랐던 순간은?
 A.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정말 다행이다'였습니다. 오래 쉬고 처음 나간 대회라 시간도 부족하고 대회가 나가기까지 고민도 많았기에 결과를 확인했을 때 안도감이 가장 컸어요. 이후 서울시장배

2위, 대구광역시장배 1위 수상도 했습니다.

Q. 이번 대회를 준비하며 특히 집중했던 부분은?
 A. '침착하게' 하기입니다. 음악이 시작하면 급해지는 습관과 단독 점프와 프로그램 속 점프의 성공률 차이를 줄이기 위해 침착하게 하나하나 수행하는 연습을 많이 했어요. 끊기지 않고 흘러가듯이 연기하는 게 정석이지만 현실적으로 제 실력에 맞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Q. 훈련 중 가장 힘든 점과 이를 극복한 방법은?
 A. 체력 훈련 달리기 특히 힘들어서 뛰다 보면 한 번씩 '위기가 와요. 그럴 때마다 "지금 힘들어야 나중에 덜 힘들다." "1분만 더, 한 바퀴만 돌면 끝이다." 이런 식의 초단기 목표를 설정합니다. 그래야 시간이 빨리 가고 버틸 수 있겠더라고요.

Q. 학업과 운동 병행의 어려운 점과 긍정적인 점은?
 A. 절대적인 시간과 체력이 부족해 일정과 이동 시간이 가장 컸어요. 이후 서울시장배

래도 운동을 하니 전반적인 체력은 오히려 더 좋아졌고, 일상에서 힘이 납니다. 하루 흐름이 빠르게 지나가니 자연스레 불필요한 고민이 줄어들 정도로 안정되고, 한정된 시간 내 효율적으로 집중해 공부하게 되는 점도 긍정적이네요.

Q. 미래융합학부에서의 배움이 선수 활동이나 경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A. 무전공이라 단합심은 좀 약한데 오히려 그 점이 개인 선수 생활에는 이점으로 작용한 거 같아요. 또 현재 듣는 요가 수업은 운동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데, 이렇게 여러 분야의 과목을 균형 있게 들을 수 있는 점도 큰 장점 같아요. FYP 활동을 통해 공연 관람, 진로 상담 등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았습니다.

Q. 앞으로의 목표와 전공·피겨를 연결한다면?
 A. 학생 때 목표는 코치 자격증 취득과 급수 상승입니다. 글로벌비즈니스 관련 전공을 고려 중인데, 스케이팅 브랜드 관련 기획·홍보 분야 진출을 생각 중입니다. 또, 아이스쇼 단원이 되거나 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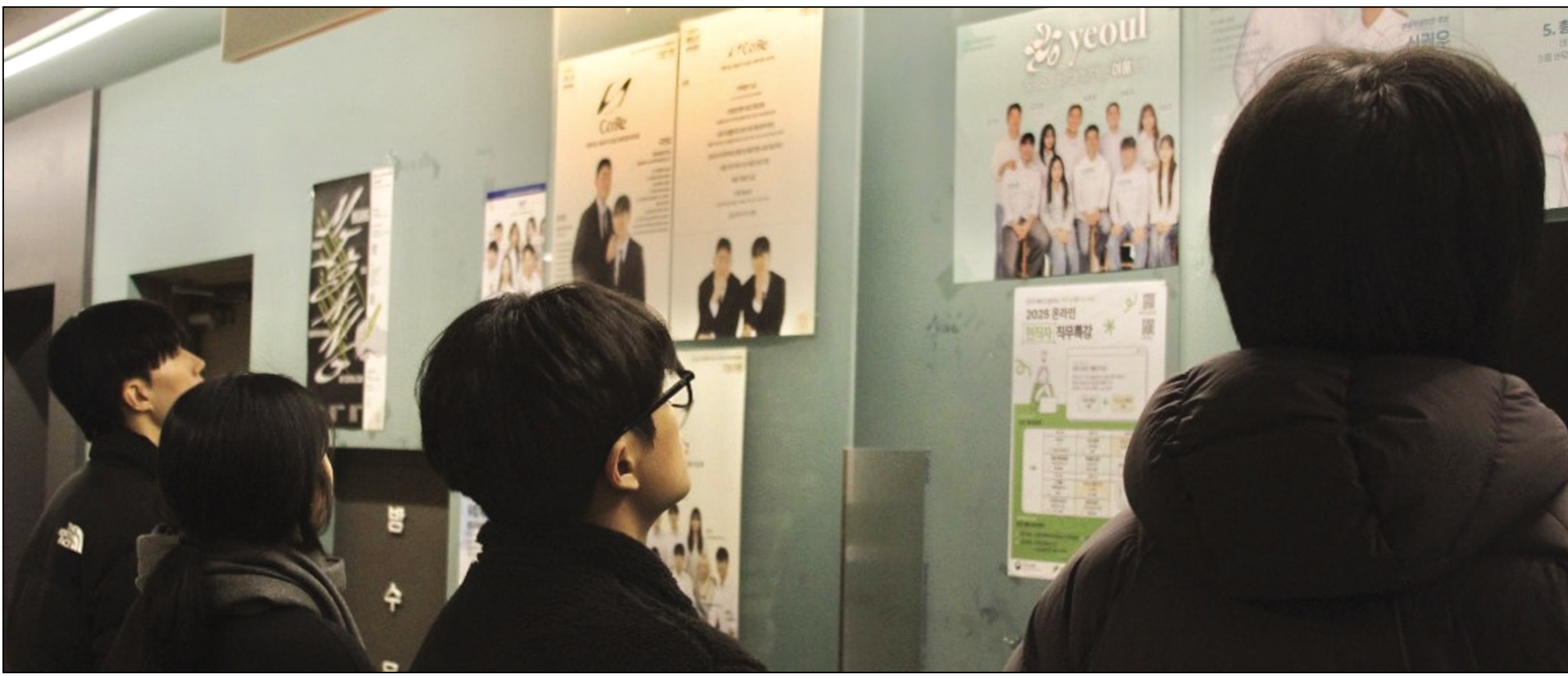


▲ 출처: 피겨포토

을 하고 싶기도 해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해 팀 동료들의 사진이나 학교 학생들의 사진을 협업해서 찍고 싶습니다.

Q.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A. 제가 특별히 대단한 사람은 아니지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빠른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도전해 보세요. 민망함은 잠깐 지나가니까요!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스콘아 생일 축하해!”

개교 78주년 기념 생일카페 행사 성황리에 종료... 다양한 이벤트와 상품까지



지난 10월 22일(수)에 대일관 SP Cafe(이하 SP)에서 우리대학 홍보단 ‘온빛’ 주최로 개교 78주년 기념 생일카페 행사 ‘해피 서경데이’가 성황리에 종료됐다. 행사는 12시부터 18시까지 진행

됐으며, 서경 모의고사와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 참여가 가능했다. 우리대학과 관련된 문제를 푸는 서경 모의고사에서 100점을 득점한 선착순 200명은 스콘이 새겨져 있는 꿀살기를 받을 수 있었다.

이후 받은 꿀살기와 포스터, 하트 모양의 풍선, 컵 받침, 현수막 등 생일카페로 꾸며진 SP에서 인증사진을 남기고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올리면 끝난다.

행사가 열린 SP 내부는 평일 낮임에도 많은 학생으로 북적였고, 곳곳에 설치된 포스터와 풍선 장식 이 생일카페 분위기를 더했다.

참여자들 모아 추첨을 통해 △서경 후리스 △배달의 민족 △오만 원권 △GS25 만 원권 △생일 축하수건 등 다양한 상품을 증정하기도 했다.

이벤트가 종료된 후, 우리대학 공식 인스타그램에 대표 캐릭터 ‘스콘’ 이가 보내는 편지 게시물이 올라오기도 했다. 행사 참여에 대해 감사 인사를 전하고 다음에 있을 이벤트를 예고하는 말을 담았다.

이번 해피 서경데이는 작년에 이어 2번째로 진행됐다. 이번 연도엔 더욱 규모를 키우고 이벤트 수를 늘렸다. 작년에 SP와 로열 카페에서 77주년 기념 컵 받침을 제공하고, 교내 곳곳에 기념 포스터를 게시했다.

노석원(아텍 25) 학우는 “생일카페 행사한다고 들어서 갔는데 SP에서 진행해서 접근성이 좋았다”며 “서경 모의고사 이벤트에 참여했는데 문제는 많이 어렵진 않았지만, 인터넷을 찾아보지 않으면 모를만한 문제가 1~2문제 정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후리스를 얻고 싶어서 인스타그램 스토리 이벤트도 참여했지만, 나중에 추첨 결과를 확인했을 때 인스타그램 아이디가 없어서 아쉬웠다”며 “전체적으로 카페 안을 꾸민 것과 78주년을 재밌는 이벤트로 진행해서 마음에 들었으나 문제 중 오류가 하나 있었다는 것을 알았을 때 아쉬움을 느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 참여한 많은 학생은 “생일카페라는 색다른 형태로 행사가 진행돼 좋았다”고 말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78주년 해피서경데이는 우리대학 공동체가 함께 학교의 역사를 축하하고 미래를 함께 그려가는 의미 있는 기념의 장으로 남았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우리대학에 올린 한일 합창...

제52회 일어전공 학술제



지난 11월 14일, 본교 본관 컨벤션 홀에서 제52회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일어전공 학술제가 개최됐다.

행사에 앞서 일어전공 학부들은 북악관 앞 광장에서 일본 아이돌 ‘슈퍼하이스쿨(スーパーハイスクール)’ 교장과 멤버 슈라(終尾), 레이카(レイカ)를 맞이했다. 이후 청운관 수유리 우동 식당에서 한식을 소개하며 함께 식사 시간을 가졌고, 본교 교내 투어와 영상 인터뷰 촬영이 이어졌다. 한일문화예술연구소가 협찬한 이번 학술제는 18시가 넘어서 시작됐다. 컨벤션홀 입구에서는 방명록 작

성 후 간식과 생수, 야광 팔찌가 제공됐다. 글로벌비즈니스어학부 주임교수인 백송중 교수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한영균 학부장, 슈퍼하이스쿨 측을 비롯한 내빈이 소개된 후 본격적인 순서가 시작됐다.

1부는 세미나 발표였다. 일어전공 학술 소모임 ‘요미토라(よみとら)’가 올해 진행한 연구 활동을 소개했으며, 이어 한일 대학 생활의 차이를 다룬 ‘우리들의 이야기’ 발표가 진행됐다.

2부에서는 분위기를 전환해 글로벌발성무용전공 ‘PRIDE in Jungle’

팀이 오프닝 댄스 공연을 펼쳤다. 역동적인 무대 후에는 일어전공 밴드 ‘히비카세(ヒビカセ)’의 공연이 이어져 현장의 열기를 더했다.

이후 해외 초청 공연 순서로 슈퍼하이스쿨의 멤버 슈라와 레이카가 무대에 올랐다. 두 멤버는 사이의 ‘강남스타일’을 편곡한 퍼포먼스로 시작해 총 11곡의 무대를 선보였다. 관객들은 멤버들의 호응에 맞춰 “하이(はい)”를 외치며 열정적인 응원을 보였다.

공연의 마지막은 한일 합동 합창이었다. 모든 참여자가 무대에 올라 가수 호시노겐(星野源)의 ‘코이(戀)’를 함께 부르며 이날 학술제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어 관객들을 위한 경품 추첨이 진행됐으며, 경품은 아몬드, 김 등 한국을 대표하는 간식들로 구성됐다. 모든 순서가 마무리된 뒤에는 단체 사진 촬영이 이뤄졌고, 슈라, 레이카와 함께 기념사진을 찍거나 사인받는 학우들도 볼 수 있었다.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본교 지역사회협업센터, 정릉-서경대 상생 프로젝트 ‘자치대상’ 수상



▲ 출처: 서경TODAY

지난 9월 27일(토), 본교 지역사회협업센터는 정릉 1동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아나바다 장터와 숲속 영화제를 진행했다. 아나바다 장터와 숲속 영화제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협업 활동의 일환으로 이날 행사에는 본교 무대패션전공 학생팀과 영화영상학과 학생이 참여했다.

아나바다 장터에 판매자로 참여한 무대패션전공 학생팀은 전공 수업에서 사용하다 남은 원부자재를 이용해 스카린치(공황곤) 등 다양한 업사이클링 제품을 판매했다. 또한 주민

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에코백 꾸미기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해 많은 인기를 얻었다. 체험 과정에서 주민들의 실제 생활 속 요구사항들을 직접 들으며 지역사회협업센터의 향후 활동 방향성을 수립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숲속 영화제에서는 영화영상학과 학생이 직접 제작한 영화를 현장에서 상영하며 큰 호평을 얻었다. 주민들은 일상 속 공간에서 영화를 감상하며 학생 창작자의 작품을 통해 학생들과 교류하는 시간 또한 가질 수 있었다. 이번 상생 프로젝트는 지역

사회와 대학이 자원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는 ‘상생 협력’의 의미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10월 30일(목), 본교 지역사회협업센터는 정릉 1동 주민자치회가 진행한 ‘2025 제4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에 참여해 지역 상생 프로젝트의 성과를 공유하며 ‘자치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얻었다. 이날 성과공유회에서는 ‘함께 그린(GREEN) 정릉동의 시간들 - 나눔과 환경 문화로 이어지는 정릉-서경대 상생 프로젝트’를 주제로 지역 주민과 대학생이 함께 만든 탄소중

립 문화축제의 과정과 의미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노은영 서경대 지역사회협업센터장은 정릉 1동 자치대상 수상에 대해 “학생 참여와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한 협력 파트너로 함께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학생들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보람을 느낀다”고 전했다.

이어 내년 활동 방향성에 대해 “올해보다 더욱 폭넓고 세계적인 지역 협업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정

릉 1동에서 성공적으로 운영된 상생 프로젝트를 다른 동으로 확장 적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학생 현장 참여 기회 증대, 지역 기반 프로젝트형 교양 과목 개발, 전공별 지역 연계 프로젝트 확대 등 교육적 확장도 동시에 추진해 교육-지역-현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 밝혔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소화기 뒤 고양이, 고양이 앞 소화기... 소방냥이를 알아보자

최근 교내 소화기 근처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다. 핑크색의 고양이 발자국과 다양한 모습의 고양이

소화기 옆에 나타난 것이다. 교내 곳곳에 비치된 소화기 곁에 생겨난 고양이들은 ‘소방냥이를 찾아라’ 캠페

인의 결과물이다. 소화기 위치 인지 캠페인 ‘소방냥이를 찾아라’는 서경대학교 광고홍보콘텐츠학과 학생들이 기획해 실행한 프로젝트이다. 학생들은 위 기획으로 ‘제38회 HSAD YCC 공모전’ 본선에 진출해 300만 원가량의 실형비를 지원받아 실제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시행했다.

이 캠페인은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소화기의 위치를 대부분의 시민이 인지하기 어려웠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많은 사람이 머문 곳에서도 소화기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려고 고안해 낸 것이 바로 시각적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고양이 캐릭터와 발자국이다.

눈을 사로잡는 핑크색 발자국은 사람들의 대략적인 눈높이인 1.5미터에 부착돼 소화기가 위치한 곳까지 이어진다. 즉 발자국을 밟았으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소화기의 위치에 눈길을 주게 되고 그 뒤에 존재하는 귀여운 소방냥이의 모습 또한 마주하게 된다.

인간의 신체적, 정신적 특성을 자연스럽게 이용한 소방냥이 캠페인은 시민들에게 소방냥이가 위치한 곳에 소화기가 존재한다는 간단하지만 강력한 메시지를 재치 있게 전달한다. 또 소방냥이는 소방처 마스크트 ‘일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공 안전을 위한 캠페인이라는 목적을 더 확실했다. 우리대학을 거닐다가 강의실, 동아

리방, 연구실, 화장실 주위에서 소방냥이가 눈에 띈다면 이제 그 앞에 소화기가 존재한다고 인지할 수 있다. 또한 ‘소방냥이를 찾아라’ 포스터 QR을 통해 자세한 비하인드 영상이 시청 가능하다.

현재 소방냥이는 우리대학 외에도 유가네담갈비 서울·경기·인천 지역 53개 매장, 리안헤어 3개 매장, DDP, 안산휴게소, 삼육대학교, 개인 카페 등에서 만나볼 수 있다.

본 프로젝트를 기획한 팀은 “일상 속 안전 문제를 누구나 재미있고 친근하게 경험하도록 만들었다”는 설명과 더불어 “앞으로도 캠페인을 확대해 공공 안전에 기여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ZOOM UP



연기와 함께 사라진 양심

이요한 수습기자

한 눈에 보는 이슈

정치

APEC 이후 한국, 글로벌 경제·외교 중심으로 부상... 핵잠수함·AI 투자 성과 눈길

경제

엔비디아 한국 기업에 대규모 GPU 투자 - AI 산업 동맹 강화

사회

핫플레이스의 어두운 민낯...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문화

21세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도난사건... 루브르 박물관 도난

연예

‘국민 배우’故 이순재 별세... 향년 91세

스포츠

‘대기록 달성’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자세히 보는 이슈

APEC 이후 한국, 글로벌 경제·외교 중심으로 부상 ... 핵잠수함·AI 투자 성과 눈길



▲ 출처: BBS뉴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며 한국의 외교·경제 지형에 큰 변화를 불러왔다. 정상회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중국·일본뿐 아니라 캐나다·필리핀 등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력도 확장했다. 특히 APEC 참가 기업들이 약속한 투자 규모만 총 13조 원에 달하며 실질적 경제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건 한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이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방한 이틀째에 SNS를 통해 “한국이 디지털 잠수함이 아닌 핵추진 잠수함을 직접 건조할 수 있도록 승인한다”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수십 년간 추진해 온 한국형 핵추진 잠수함 건조가 처음으로 현실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건조 장소로 한화그룹이 인수한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지목했고, 자동차 관세 10% 인하 등 통상 협력도 이어졌다. 이 여파로 현대차 주가는 단숨에 9% 이상 상승했다. 선진국 석(미용2 25) 학우는 “핵잠수함 건조 승인 자체가 한국의 국방 역량이 태평양 안보의 핵심축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의 방한도 큰 관심을 모았다. 그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 현대차 정이석 회장과 ‘차별 회담’을 갖고 최대 14조 원 규모의 GPU 26만 장 공급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성 학우는 “26만 장 규모의 최신 GPU 확보는 한국이 AI 글로벌 3강(G3)으로 진입하기 위한 물리적 기반이자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그동안 하드웨어

제조국에 머물렀던 한국이 독자적 AI 모델을 구축하는 ‘소버린 AI’ 시대의 본격 경쟁자로 떠오르게 됐다”고 답했다.

한편, 캐나다 잠수함 사업 역시 APEC 이후 가장 주목받는 성과로 꼽힌다. 캐나다는 3천 톤급 디젤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약 60조 원 규모의 사업을 추진 중이며, 한국의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독일 업체와 함께 적격 후보로 선정됐다. MBC에 의하면 마크카니 캐나다 총리는 APEC 직후 거제 조선소를 방문해 장영실함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은 국방·산업·문화 전 영역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다”라고 강조했다.

국내 금융시장도 즉각 반응했다. 지난 1월 2,300대에서 출발한 코스피는 6월 3,000선을 넘어, 10월 말

상장 처음으로 4,000을 돌파했다. 이 상승세의 중심에는 엔비디아 방한과 AI 반도체 협력 성과가 자리했다. 젠슨 황 CEO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과 HBM 공급 및 AI 반도체 공동 개발 계획을 발표하며 장기적 협력 기반을 확고히 했다. 엔비디아와의 전략적 협력은 HBM 기술 우위를 더욱 공고히 했으며, AI 산업 성장 기대를 증폭시켜 코스피 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

이번 APEC은 한국이 글로벌 외교·경제 중심축으로 재도약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핵잠수함 추진 △관세 인하 협상 △대규모 해외 투자 유치 △첨단산업·AI 분야의 협력 확대가 동시에 전개되며 국가 경쟁력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다.

오연우 수습기자
(pink3728@skuniv.ac.kr)

엔비디아 한국 기업에 대규모 GPU 투자 - AI 산업 동맹 강화

세계 최대 AI 기업 엔비디아는 지난 10월 31일 한국 기업과 정부에 GPU(그래픽 처리 장치) 26만 개를 우선 공급한다고 밝혔다. 경주에서 열린 ‘APEC 회의와 이튿날’ 간부차린 회담을 계기로 한국 기업과 엔비디아 간 AI 산업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 최고 경영자(CEO) 젠슨 황은 10월 30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GeForce 25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젠슨 황은 행사 전 이재용 삼성그룹 회장과 정이석 현대차그룹 회장과 함께 치킨 프랜차이즈 ‘간부차린’에서 회담을 가졌다. 셋은 이 자리에서 치킨과 맥주를 마시며 한국 기업과의 AI 협력과 GPU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젠슨 황은 코엑스에서 AI 기술을 비롯한 다양한 플랫폼 및 비전에 대해 연설했다. 더불어, 엔비디아와 한국 기업과의 협력 의지도 공개적으로 강조했다.

엔비디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삼성전자, SK그룹, 현대차그룹, 네이버 클라우드에 GPU를 우선 공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국내 주요 기업들은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생산을 주력으로 삼는 기업이다. 이에 삼성은 엔비디아가 공급한 GPU 5만 장을 기반으로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AI 팩토리’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SK그룹은 주력 사업인 제조 분야에 GPU 5만 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제조 AI 팩토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이후 정부를 비롯한 공공기관, 기업 등 다양한 기관에 개방할



▲ 출처: 주간경향

방향이 있다. 현대차그룹은 자율수행 및 차량 내 AI 기능 개발을 위해 GPU 5만 장을 활용해 세계적인 AI 자동차 모델을 만들 계획이다. 더불어, 약 4조 원을 추가로 투자해 글로벌 수준의 AI 차량 모델을 구현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클라우드는 GPU 6만 장을 활용해 ‘AI 플랫폼’을 비롯한 다양한 디지털 공간을 창출할 예정이다. 또한, 이를 토대로 AI 디지털 서비스를 강화할 방침이다.

엔비디아의 GPU 26만 장 투자에 20대 A 씨는 “엔비디아 같은 글로벌 기업이 우리나라에 적극적인 투자를 한다는 점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대학생을 비롯해 모든 사람에게 AI가 필수적인 시대가 됐다. 엔비디아와 국내 기업이 협력해 AI 플랫폼 기술을 발전시키면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로운 영향을 미칠 거 같다”는 견해를 밝혔다.

30대 B 씨는 “젠슨 황 CEO와 국내 대기업 회장들이 간부차린에서 회담을 가진 것이 친근하게 느껴졌다”. 이어 “AI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만큼 향후 더 좋은 기술이 나오길 기대한다. 특히, 해외 기업이 국내 기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투자를 약속한 점이 매우 고무적”이라고 전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핫플레이스의 어두운 민낯... 런던베이글뮤지엄 ‘과로사 의혹’



▲ 출처: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스타그램

지난 10월, 유명 베이커리 ‘런던 베이글뮤지엄(이하 런베뮤)’에서 근무하던 20대 청년이 주 80시간에 가까운 노동에 시달리다 7월에 사망한 사실이 알려졌다.

10월 27일 정의당은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대한 책임을 회피 말라’는 제목의 성명문을 발표하고 “유족이 산재를 신청했지만, 회사는 과로사 의혹을 부정하며 자료 제공을 거부하고 있다”며 청년 노동자의 죽음에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정의당은 “런베뮤 측이 회사가

확인한 근무 기록은 유족 주장과 다르다는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회사는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유족이 요구하는 각종 자료를 충실히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어 “고용노동부도 이 죽음을 외면해선 안 된다”며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견해를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카페 일바생 A 씨는 “이번 일을 계기로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됐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근로감독이 단순한 단속이 아니라 노동자들의 보호 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의 성명문 발표 후 이틀 뒤, 고용노동부(이하 고용부)는 런베뮤에 대한 근로감독에 착수했다. 고용부는 이번 감독을 통해 장시간 근무 문제를 집중 조사에 나선다. 한편, 직원들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 및 휴가와 휴일 부여 실태 등 노동관계법 위반 사항도 살펴볼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은 “유명 베이글 카페에서 미래를 꿈꾸며 일하던 20대 청년이 생을 마감한 것에 마음이 아프다”며 이번 감독을 통

해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범위만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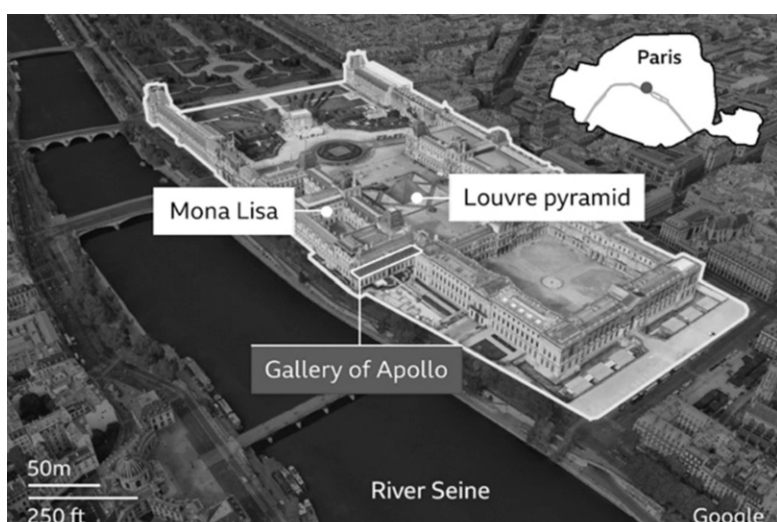
이후 11월 3일, 유족 측 대리인 법무법인 ‘더보상’은 보도자료를 통해 “회사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지속적인 대화 노력을 통해 유족과 회사는 오해를 해소하고 상호 화해에 이르렀다”며 산업재해 신청을 취하했다고 밝혔다. 다만 유족의 산업재해 신청 취하에도 고용부의 근로감독은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이어 11월 10일, 런베뮤의 강관구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구성원 모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과 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다시 한번 깊이 느꼈다”고 전했다. 과도한 근로 시간 논란에 대해 카페 매장 특성상 장시간 연장근로가 지속해서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며 자율적 기록 방식의 한계를 확인한 만큼 실시간 동기화할 수 있는 인사 시스템 도입 시기를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또한 3년간 63건이라는 과도한 산업재해 신청 논란에 대해 “산업재해 승인 63건의 배경은 제도 안에서 구성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회사의 방침과 맞닿아 있다”며 업무상 발생한 모든 재해를 사고의 경중과 관계없이 산업재해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에 발생한 일이라 전했다. 덧붙여 “오히려 구성원을 제도 안에서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 신청의 결과”라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번 사과가 일시적인 대응에 그칠 수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

21세기에 일어난 역사적인 도난사건... 루브르 박물관 도난



▲ 출처: BBC

2025년 10월 19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의 심장부이자 세계 문화유산의 보고인 루브르 박물관이 전례 없는 보안 위기를 겪었다.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람객이 방문하는 루브르 박물관의 ‘아폴론 갤러리’가 개장 직후 강도들에 의해 절도 당한 것이다.

도난이 이루어진 그날 루브르 박물관은 평소와 다를없이 개장했으나 오전 9시 30분경 강도들에 의해 값은 매길 수 없는 문화유산 8점을 도난당했다. 범인 4인은 어찌하면 너무 뻔해 보이는 전술을 사용해 자연스럽게 절도를 진행했다.

바로 노란색 작업 조끼를 착용하고 건설 노동자로 위장해 트럭에 장착된 기계식 승강기를 이용해 ‘아폴론 갤러리’의 센강 쪽 발코니를 넘어 내부로 진입한 것이다. 전통 공구를 사용해 발코니 창문을 강제로 해체하고 안으로 들어간 범인 2인은 무장하지는 않았지만, 경비를 위협

하고 진열장의 유리를 부순 뒤 보석을 쟁취 스키터를 이용해 달아났다. 이들은 보석으로 이뤄진 문화재를 특징해 절도했는데 그 목록은 다음과 같다. 스나폴레옹 1세가 두 번째 부인인 마리 루이즈 황후에게 선물한 목걸이와 귀걸이 한 쌍 스나폴레옹 3세의 세 번째 부인인 유제니 황후의 소유였던 다이아몬드(티아라와 왕사), 브로치, 장식용 리본 스마리아 펠리 프랑스 마지막 왕비가 착용했던 사피어 세트로 구성된 티아라, 목걸이, 귀걸이 한 쌍 등 이대출처: THE GUARDIAN].

또한 이들이 훔친 보석들의 잠정 가치는 약 8,800만 유로에 달하는데 이는 오직 보석의 가치와 역사적 가치는 추정하지 않은 것이라고 프랑스 검찰은 밝혔다. 그러나 범인들의 행보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 있는데, 바로 그들이 리프트 다이아몬드 훔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리프트 다이아몬드는 저주받은 다

이아몬드 중 하나로 불리는데 루이 16세와 마리 앙투아네트 등 프랑스 혁명으로 처형당한 통치자들이 착용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믿음으로 인해 리프트 다이아몬드를 훔치지 않은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도난당한 보석들이 암시장에서 본래의 형태를 잃은 채로 거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0대 A 씨는 “역사적인 가치가 상당해 보이는데 너무 안타깝다”며 “하루빨리 보석들을 되찾고 박물관의 보안을 강화하면 좋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또 20대 B 씨는 “범행 수법이 너무 충격적”이라며 “범인들이 어서 검거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과거에도 비슷한 절도 사례들이 존재한다. 먼저 1911년에 일어난 모나리자 도난 사건이다. 빈센조 페루자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도난을 시도했고 성공했으나 결국 체포돼 작품은 회수됐다. 1998년에는 19세기 프랑스 화가 장바티스트 카미유 코로의 작품이 도난당해 아직까지 회수되지 못했다. 이런 커다란 사건들을 겪은 후 루브르 박물관은 매년 보안에 신경 쓰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결과 위와 같은 사건들로 비춰보았을 때 과거에도 현재에도 어느 때나 보안상의 취약점은 버젓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급작스럽게 나타나는 경우가 태반이니 우리나라도 박물관과 미술관의 보안을 점검하고 최신화된 보안 체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존재한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try@skuniv.ac.kr)

청년을 노리는 취업사기의 덫... 취업 미끼 속 잇따른 피해

최근 캄보디아의 범죄 단지에서 발생한 고수익 아르바이트 취업 사기 및 감금 사태로 20대 한국인 청년이 목숨을 잃었다. 캄보디아 범죄 활동은 2024년 8월 KBS의 보도로 공론화됐지만, 긴장한 20대 청년의 잔혹한 죽음에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해야 하는 절박한 사람들을 노린 유인형 범죄는 최근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캄보디아 내 한국인 관련 범죄 신고는 2022~2023년까지는 10건 미만에 불과했지만, 2025년에는 300건 이상으로 크게 늘

어났다. 이렇듯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급격히 늘어난 배경에는 캄보디아 내 범죄 조직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높은 범죄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면서 시작됐다. 또한, 한국의 젊은 세대가 단기간에 큰돈을 벌어 일찍이 경제적 여유를 누리고자 하는 심리를 악용한 것도 있다.

캄보디아 내 권력자와 프놈펜을 비롯한 주요 도시의 범죄 조직들이 부정부패를 일삼는 것도 문제다. 이들은 공권력을 활용해 범죄 활동을 묵인하고 금전적 이익을 일삼는 등 캄보디아 내부

의 구조적 문제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부패가 경찰력 약화로 이어져 범죄 척결이 어려운 상황이 조성됐다. 더불어, 캄보디아를 비롯한 동남아시아 국가에서도 취업 사기를 비롯한 국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가 범죄율이 높은 동남아시아 국가에 여행 위험 국가 및 금지 국가로 지정하고 있지만, 외교 및 안보 정책에는 미흡하다는 평도 더러 있다.

이에 취재부는 해외 고수익 아르바이트의 위험성과 대응 방안, 예방책을 종합적으로 짚어봤다.

날로 진화하는 취업 사기와와의 전쟁



▲ 출처: 게티이미지

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취업 방지 사기가 대포 통장 개설이나 불법 자금 세탁과 연결되는 고리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 거래 모니터링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청년들이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 플랫폼과 채용 사이트를 통한 허위·과장 구인 광고 피해를 막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나섰다.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책임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취업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하는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도록 관련 법 개정을 검토 중이며, 피해 발생 시 신속한 법적 구제 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해외 취업 사기 행위는 끊이지 않는다. 해외 고수익 IT 직종 등을 미끼로 유인한 뒤, 현지에서 감금과 여권 압류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에 피해자를 강제로 가담시키는 수법은 목숨까지 위협한다. 이 경우 조직이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어 국내 경찰의 수사 권한이 미치지 어렵고, 피해자 구출 과정에서 외교적 문제까지 얽혀 신속한 대응에 한계를 보인다.

취업 정보 플랫폼의 느슨한 인증 절차 역

시 문제로 지적된다. 대다수의 구직자가 안심하고 이용하는 대형 채용 플랫폼에서도, 위장된 유령 회사의 구인 광고가 필터링 없이 노출되면서 피해가 끊이지 않는다. 현행 법상 플랫폼 사업자에게 모든 광고 내용을 실질적으로 검증할 의무가 불충분하다는 허점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은 이를 악용하여 광고를 올려 구직자 정보를 탈취한 후 사라지는 수법을 반복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용혁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취업 사기 범죄의 핵심은 금전적 피해뿐 아니라 개인 정보 유출, 심리적 불안정 그리고 해외 입질 문제까지 엮인다는 점"이라며, "이처럼 복합적인 사안은 단일 부처의 힘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어, 정부 차원의 통합 지휘 본부 구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관련 기관은 지금의 개별적인 대응을 넘어, 입체적이고 통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취업 사기는 개인의 꿈과 희망을 약화하는 비인도적인 범죄다. 정부는 구직자들이 안심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정책의 허점을 메우고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무는 강력한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달콤함에 가려진 검은색, 초콜릿 같은 유혹



▲ 출처: 조선일보

를 강요하는 취업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급증했다"며 해외 취업 사기에 각별한 주의를 전했다.

정부는 우리 국민 취업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해 2023년 11월 미얀마 산주 북부, 동부, 까야주 등 일부 지역과 2024년 2월 라오스 골든트라이앵글 경제특구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각각 발령한 바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월 21일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우리 국민 취업 사기·감금 관련 공판별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현지 감금 인원이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4명, 2022년 2명에서 2023년 92명, 올해 상반기 96명으로 최근 2년 사이 6명에서 188명으로 증가했다.

해외 취업 사기의 주요 수법은 온라인 커뮤니티나 SNS 등을 통해 고수익의 해외 취업을 홍보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후 텔레그램을 통해 개별적으로 접촉해 항공권 제공·숙식 보장 등을 미끼로 유인한다. 이후 피해자가 출국해 해당 국가에 도착하면 자유로운 이동을 제한하고 보이스피싱이나 온라인 도박 등 관련 불법행위에 가담시킨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청년 고용률은 44.6%에 불과하다. 올해 중 청년 취업자가 368,2만 명으로 가장 많았던 5월 고용률도 절반에 못 미치는 46.2%다. 이렇게 한국 고용시장이 어려워지자, 이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절박함을 이용해 고수익과 숙식 제공 등을 제안하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이러한 범죄 조직은 체계적으로 조직되어 탈출이 어렵고, 감금된 상태에서 외부에 피해 사실을 알리기도 쉽지 않다. 심한 경우 고문을 당하다 죽는 경우도 있으나 제도적 허점이 많아 쉽게 적발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대사관의 미흡한 대처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외 취업 사기는 단순한 구직 사기를 넘어 조직화한 국제 범죄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대응을 강화하고 있지만, 신고 구조·예방 체계·외교 대응 등에서 여전히 허점이 존재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해외 취업 사기, 개인이 실천할 수 있는 예방 방법 및 대응 방안

최근 캄보디아를 비롯한 여러 해외 국가에서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한 취업 사기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외 구직자가 사전에 숙지해야 할 예방책과 대응 방안에 대해 취재부가 정리했다.

먼저, 믿음직한 기업인지 신뢰도 검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채용을 제안한 회사의 사업자 등록 정보 및 회사 주소 등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당 기업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해 기업 정보 및 실제 존재 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상식적인 수준의 임금인지도 점검해야 한다. 특별한 기술이 있거나 고강도 노동을 하지 않는 이상 비현실적인 임금을 주는 일자리는 현실과 거리가 멀다. 이러한 아르바이트 제안이 오면 사전에 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봐야 한다.

더불어, 외교부 사이트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외교부의 해외안전여행 사이트에 접속해 방문하려는 국가 및 지역의 여행경보 단계와 최근 발생한 범죄 유형을 확인할 수 있다.

KOTRA 사이트를 활용하는 방안도 있다. 취업 사기가 의심될 시 KOTRA 해외

취업 헬프데스크'를 이용해 해당 구인처 및 구인 공고에 대한 정보를 확인 요청할 수 있다. 만약, 계약 사기 및 독소 조항이 의심될 경우 '자본번호사 제도'를 활용해 계약 조항을 사전에 검토받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피해가 발생한 경우,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으면 스스로 위기에서 벗어 나기 어렵다. 본인 또는 지인이 해외에서 피해를 보고 있다면 처한 상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가족, 친구 혹은 대한민국 대사관에 연락을 취해 자신의 위치나 피해 현황 등을 공유해야 한다. 이때 조직원들의 인상착의 등도 함께 알려줘야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

다만, 대사관은 직접적인 사법 권한이 없어 범인을 체포하거나 현장에 출동할 수 없기 때문에 대사관을 통해 현지 경찰과 공조하게 된다. 캄보디아 등 일부 국가는 피해자의 직접 신고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인이 직접 신고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가족이나 지인이 책임을 지고 대리 신고를 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외에서 피해를 당했을 때는 텔레그램을 이용해 현지 경찰청 핫라인(117) 채널과 연결해야 한다. 이후 구글맵이나 텔레그램 기능을 활용해 본인 위치, 연락처, 건물 사진, 현재 얼굴 사진, 구조를 원하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전송해야 한다.

해외 취업 사기는 철저한 준비와 신속한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 사전 대비와 정확한 정보 확인만으로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개인의 주의와 위에서 언급한 사이트의 적극적인 활용이 요구된다.

끊이지 않는 취업 사기와 우리들의 인식은?



▲ 출처: 조선일보

캄보디아 정부가 범죄 조직을 강하게 단속하지 않으며 로망스스캔, 보이스피싱 등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취업 사기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범죄 조직은 고액을 지급한다며 돈이 절박한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피해자들이 범죄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 폭행을 해 범죄에 가담하게 만든다.

캄보디아 말고도 과거 사례로 유학 학원 원장이 학원을 등록한 사람들에게 일본에서 유학 시 생활비를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제안했다. 하지만 막상 현지에 도착했을 때 피해자들의 여권을 뺏고 인신매매를 한 사례도 있다.

과거와 현재도 해외 취업 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기자는 이런 상황 속 대학생과 사회인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20대, 50대 남성과 대화를 나눠봤다.

[대학생 인터뷰] - 익명 (20·남)

Q. 최근 취업 사기 이슈를 어떻게 접했고,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
A. 온라인 뉴스를 통해 캄보디아 취업 사기를 접했다.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지인을 믿고 캄보디아로 향했던 청년이 공항에 도착해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과 협박을 당하다 사망한 사건이다.

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만들어 공범으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Q. 고수익, 단순 업무, 숙식 제공 등 조건 속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제안 조건이 사회적 평균 임금 대비 너무 파격적이다.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특별히 숙식 제공이라는 제안 조건은 신분 통제, 노동 통제, 도피 차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일자리 제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뢰 여부를 판단하십니까?
A. 검증된 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는다. 그 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회사 정보 공개 여부를 면밀하게 본다. 공신력 있는 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찾아보고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해 본다.

이렇듯 아무 조건 없이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채용 플랫폼을 이용해 기업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일자리 제안이라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듯이 말이다.

[사회인 인터뷰] - 익명 (50·남)

Q. 최근 취업 사기 이슈를 어떻게 접했고, 어떤 점이 기억에 남았는지?
A. TV 뉴스와 온라인 매체를 통해서 접

했다. 단순히 금전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 조직에 가담하게 만들어 공범으로 만든다는 것이 너무 충격적이었다.

Q. 고수익, 단순 업무, 숙식 제공 등 조건 속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 제안 조건이 사회적 평균 임금 대비 너무 파격적이다. 그만큼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못한다면 의심해야 한다. 특별히 숙식 제공이라는 제안 조건은 신분 통제, 노동 통제, 도피 차단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일자리 제안을 받을 때 어떤 기준으로 신뢰 여부를 판단하십니까?
A. 검증된 기관이나 사업자로부터 일자리 제안을 받는다. 그 외의 경우 사업자 등록이나 회사 정보 공개 여부를 면밀하게 본다. 공신력 있는 채용 플랫폼을 사용하는지 찾아보고 그래도 의심이 된다면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 대응단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검색해 본다.

이렇듯 아무 조건 없이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면 의심해 봐야 한다. 또한 공신력 있는 채용 플랫폼을 이용해 기업에 대해 알아봐야 한다. 아무리 좋은 조건의 일자리 제안이라도 의심하고 또 의심해야 한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야 하듯이 말이다.



▲ 출처: 연합뉴스

대형 채용 플랫폼 사업자에게 허위 광고 검증 책임을 부여하고 위반 시 강력히 제재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처 간의 칸막이를 허물고 피해 발생 시 금융당국, 경찰청 등 관련 기관들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하는 본부를 구축해야 한다. 특히, 해외 피해 발생 시 빠른 외교·사법 공조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민간 전문가와 연계하여 최신 사기 유형을 분석해 대중에게 상시 알려야 한다.

범죄 조직이 노리는 것은 취업난 속의 절박함과 '쉽게 돈을 벌고 싶다'는

심리다. 정상적인 채용 절차에서는 현금, 과도한 개인 정보, 합리적이지 않은 투자나 보증을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과도한 고수익 공고나 비정상적인 요구를 접했을 때는 무조건 의심하고 피해야 한다.

취업 사기와와의 전쟁은 장기전이다. 정부의 제도적 지원은 분명한 안전망이 되지만, 구직자 본인은 그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는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채용 공고 정보를 철저히 교차 검증하는 신중한 자세와 함께, 끝까지 경각심을 늦추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빛 뒤에 숨은 어둠...지역축제는 누구를 위한 축제인가

인구가 수도권으로 집중되며 '서울 공화국'이라는 말이 일상화된 지금, 많은 지방자치단체는 줄어드는 인구와 침체된 상권을 돌파하려는 방안으로 지역 축제를 선택하고 있다. 각 지역의 특산물과 농산물을 내세운 축제는 외부 방문객을 유치하고, 지역 정체성을 알리는 가장 손쉬운 활성화 전략으로 자리해 왔다. 실제로 이러한 축제의 현장은 대체로 비슷한 풍경을 그린다.

적막하던 광장에 천막과 판매대가 늘어선 조용하던 마을에도 발걸음이 서서히 모인다. 지역 주민뿐 아니라 인근 도시에서 일부러 찾아온 방문객들까지 특산품을 둘러보고, 지역 음식을 맛보며 잠시 머문다. 체험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가족들, 행사를 운영하는 진행원들, 구경 삼아 들른 외지인의 움직임이 뒤섞이며 지방 축제 특유의 온기가 형성된다. 한동안 정체돼 있던

상권에도 소비가 발생하며 지역은 짧게나마 활력을 되찾는다. 그러나 축제가 끝난 뒤에는 또 다른 장면이 남는다. 정돈되지 않은 현장,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경제적 성과, 준비 과정에서 소모된 인력과 시간에 대한 피로감이 뒤따른다. 무엇보다 '이 행사가 지역의 미래를 바꿀 만큼의 힘을 갖고 있는가'란 질문은 해마다 반복되는 실

정이다.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한 전략으로 축제가 계속 활용되고 있지만, 단기적 활기 이상의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이처럼 지역 축제는 활기와 부담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있다. 그렇다면 축제는 지금, 지방을 실제로 살리고 있는가? 어떤 지점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가? 그 답을 본문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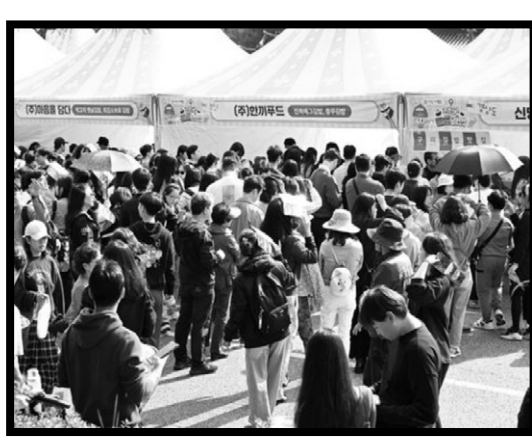
지역 소멸 시대, 주민 참여로 피어나는 '축제의 힘'

최근 지역 축제는 단순한 행사를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특산물 홍보 등 지역의 인지도를 높이는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지자체 주도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의 삶과 밀접하게 연계된 축제가 자리 잡고 있다. 축제의 경제적 파급 효과는 우리의 예상보다 크다.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단기간에 유입되면서 지역 내 식당, 숙박, 교통 등 서비스업 전반의 매출이 직접적으로 증대돼 불황인 지역 상권을 활발하게 순환시키는 역할을 한다. 더 나아가,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채용되는 청년과 중장년층에게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며 고용 불안 해소에도 이바지한다. 또한 축제는 지역 고유의 '지역성'을 콘텐트화해

대외적으로 홍보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특정 농수산물을 축제 주제로 삼을 경우, 해당 상품은 즉각적인 브랜딩 효과를 누리며 전국적인 인지도를 확보할 수 있다. 이는 지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각인시켜, 축제 기간 후에도 지속적인 관광객 유치와 투자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지역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한 성공의 본보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김천김밥축제'다. 김밥이라는 일상적이면서도 지역 상징성을 담고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주민들은 김밥 만들기 체험, 품평회 등을 통해 축제의 주인공으로 참여했다. 특히 뽕튀기를 일회용 접시 대용으로 사용하는 혁신적인 시도는 환경 보호 측면에

서 긍정적인 반응을 얻으며 주목받았다. 축제의 성공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사실은 축제에 직접 참여한 상인들의 생생한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 확인됐다. 논산 딸기 축제에 참여한 상인 A 씨(46)는 "축제로 인한 가계 홍보 효과와 본업에서는 얻기 힘든 소비자와의 직접적인 대면 기회를 확보할 수 있어 부스를 다시 열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축제의 폭발적인 인기는 예기치 못한 운영상의 어려움을 동반하기도 했다. A 씨는 교통체증으로 인해 추가 물량 도착 시간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무작정 기다리는 손님과 구매하지 못한 손님들을 상대하는 것이 큰 정신적 부담이었다고 토로했다. 이에 A 씨는 주최 측에 "축제장 인근의 차량 통제 및 주

차 공간 확보에 더욱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체계적인 축제 관리가 상인들의 원활한 영업 활동과 방문객 만족도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임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축제가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는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명확한 성공 공식이 필요하다. 외부의 거대 자본이나 유명 연예인에게 의존하는 단발성 축제는 결국 지역민과의 괴리만 키울 뿐이다. 지역민 스스로가 가진 이야기와 문화를 콘텐트로 발전시키고, 자발적으로 축제를 이끌어가는 과정에서 얻는 공동체 의식이야말로 축제의 지속 가능한 힘이 다. 이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을 단순한 행정의 대상이 아닌 축제의 기획자이자 운영 주체로 세우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때다.



▲ 출처 : 게티이미지



▲ 출처 : 뉴스1

축제는 경제적 효과를 넘어 세대 간 문화를 잇는 장이 된다. 어린 세대는 지역의 전통문화를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어른들은 함께 준비하는 과정에서 공동체 의식을 회복한다. 이는 단순한 행사가 아닌 '지역의 자존감'을 키우는 과정이기도 하다. 최근 여러 지방 축제가 주민 참여를 넘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는 이유다. 주민 공연단을 꾸리거나, 마을 청년들이 홍보 영상을 제작하는 등 축제의 주도권을 지역 내부로 돌려려는 시도가 확산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용인 신갈오거리'에서 뚜렷하게 드러난다. 한때 북서부 상권의 중심지였던 신갈오거리는 도시 개발이 더디게 진행되며 옛 활기를 잃었다. 용인시는 이를 회복하기 위해 도시재생사업과 더

불어 주민 참여형 축제를 결합한 '신갈오거리 거리 축제'를 선보였다. '국악인사이드'와 주민들이 함께 준비한 사자탈 놀이 공연, 주민들이 고두밥으로 직접 빚어보는 '신갈막걸리' 체험 등 지역 전통을 시민의 손으로 되살리는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특히 사자탈 놀이는 주민들이 직접 종이상자로 탈을 제작하며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되새긴 사례다. 신갈막걸리 또한 단순한 체험을 넘어 공동체 회복의 상징이 되고 있다. 공우 주방 '오거리부엌'에서 주민들이 취미로 빚던 막걸리가 재생사업을 계기로 상품화 단계에 들어선 것이다. 축제 참여를 통해 시민 반응을 수집하고 브랜드를 완성해 수익을 다시 지역으로 환원하는 '지역 선순환' 모델을 실험하는 셈이다. 용인시는 "신갈오거리를 단순히 정비하는 것

을 넘어, 주민들이 스스로 생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참고: 뉴스1). 주민 참여 확대는 수원화성문화제에서도 주요한 변화로 나타난다. 오랫동안 관광객 중심의 도시 축제로 운영되던 수원화성문화제는 올해부터 '시민 주도형 축제'로의 전환을 공식화했다. 세계문화유산인 수원화성 일대에서 열리는 여러 행사인 △정조대왕 능행차 공동 재현 △미디어아트 △세계유산 축전을 하나로 묶은 '힐링풀링 수원화성'은 시민이 직접 축제를 구성한다. 이 중 특히 능행차 공동 재현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과거에는 관람 중심 프로그램이었다면, 이제는 시민체험단, 플래시몹, 지역 풀물단 300여 명이 참여하는 연합 공연 등 참여의 폭을 넓혔다. 전국 동아

리들이 거리공연에 함께하는 '조선백성문화마당', 축제 기부자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퍼포먼스 등도 마련돼 '구경하는 축제'에서 '함께 만드는 축제'로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참고: 아주경제). 이처럼 각 지방자치단체가 축제를 주민 손으로 돌리는 이유는 분명하다. 축제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시민이 행사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생생'하는가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역사와 생활 문화가 주민 참여를 통해 재해석될 때, 축제는 단순한 일회성이 아니라 지역 공동체를 다시 묶는 계기로 자리 잡는다.

주민의 손에서 다시 태어난 지역 축제

축제 흥수 속, 제대로 된 지역축제를 찾아서

단순 즐거움 넘어, 지역 정체성과 의례성을 담아 지속 가능한 축제가 된다. 지역축제는 지역 고유의 농수산물이나 역사·산업 자원을 내세워 정체성을 드러내곤 한다. 특히 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이후, 지역축제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핵심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 축제들은 서로 경쟁적으로 규모·콘텐츠를 확장하며 30여 년 동안 지역의 인지도 상승과 관광 수요 창출에 일정한 성과를 내왔다. 그러나 양적 확장 속에서 본질을 잃어가는 축제도 적지 않다. 외부 대형사 의존, 기획력 부재, 지역 특성과 무관한 콘텐트 남발, 예산 소진형 행정 운영 등 구조적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축제의 '축(術)'이 즐김이라면, '제(祭)'는 의례이다. 많은 지방 축제가

'축'만 존재한 채 '제'가 빠져 있어, 지역이 축적해 온 이미지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올해 전국적으로 유행한 테마 중 하나는 '맥주'다. 전국 약 19곳에서 맥주 축제가 열렸지만, 정작 해당 지역과 맥주 생산·문화·역사적 연계성을 찾기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 지역 고유성이 빠진 테마형 축제는 일시적 흥행은 얻더라도,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없다. 현장에서조차 다르지 않았다. 2024년 10월 초 경북 영주의 한 인삼축제에서는 지역 특산물인 풍기 인삼을 내세웠지만, 일부 상인들은 실제 풍기 인삼을 판매하지 않았다. 축제 관계자는 "진열된 인삼은 모두 풍기 인삼"이라 밝혔으며, 한 상인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며 취재를 회피했다. 인

삼 수확 적기는 10월 말이지만 축제는 매년 10월 초에 열려, 상품 자체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가 이뤄지고 있었다. 관광객으로서 지역 특산물을 확인할 방법이 없어 실망을 안고 돌아가는 사례도 발생했다(출처: JTBC 뉴스). 지역축제가 진정으로 지역을 살리는 동력이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이는 즐거움'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증명하는 진정성이 담겨야 한다. 즉, 축제가 소비되는 행사가 아니라 지역을 이해하게 만드는 경험이어야 한다. 그러는 데 필요한 요소가 바로 의례성이다. 여기서 의례성이란 종교적 의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축제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고유한 절차와 상징, 참여 방식'을 뜻한다. 지역민의 역사·생업·문화가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구조적 장치가 필

요하다는 의미다. 올해 장소를 옮기며 재 준비에 나선 안동국제탈춤 페스티벌처럼, 지역 정체성을 기반으로 하면서도 세대 확장과 새로운 관객층 유입을 위한 기획적 실험도 요구된다. 단순 판촉이나 먹거리 판매 중심 운영에서 벗어나, 주민·예술가·상공인·관광객이 함께 참여하는 구조로 변화할 때 축제는 지속성을 갖는다. 결국 지역축제의 핵심 과제는 명확하다. 지역을 설명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 것, 지역민이 주체가 될 것, 그리고 그 지역에서만 가능한 의례적 경험을 설계할 것. 이 조건이 충족될 때 축제는 단순한 행사에서 지역 공동체를 지탱하는 문화 인프라가 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축제가 아니라, 제대로 된 축제다.



▲ 출처 : 대구신문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쓰레기 문제'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제는?



▲ 출처 : 뉴스1

화려한 공연과 합성이 끝난 축제 현장에서 플라스틱 컵과 음식 용기로 가득 찬다. "지역축제는 항상 쓰레기 문제"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등장할 만큼 환경 문제는 오랫동안 축제의 그림자로 자리 잡았다. 통제된 도로 탓에 도심이 마비되고, 밤늦게까지 행사가 진행되는 탓에 주민들은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낸다. 하지만 최근 전국에서 '지속 가능한 축제'를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변화의 핵심으로 꼽히는 것은 바로 다화용기다. 환경부가 '친환경 지역축제 확산 방안 추진 성과공유회'에서 광양 매화축제, 안성 바우덕이축제, 고창 모양성제 등 3개 축제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다화용기 사용 시 참여자 1인당 폐기물 발생량이

54.6g에서 34.6g으로 평균 36.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전라남도는 22개 시군 대표 축제를 1개씩을 선정해 '일회용품 없는 축제 만들기 원년의 해'로 지정했다. 음식점과 푸드트럭에서 다화용기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구례 산수유축제, 광양 매화축제에서 33만 개의 다화용기를 제공해 17톤의 폐기물 감량에 성공했다. 일부 지자체는 보증금 시스템으로 변화를 꾀하고 있다. 제주에서 시행 중인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올해 반환율이 61.8%로, 지난해보다 6% 상승했다. 소비자가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300원뿐만 아니라 종량제 봉투 등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충청남도도 공공

기관에 해당 시스템을 도입해 회수율 97%의 효과를 보기도 했다. 쓰레기 없는 깨끗한 축제들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전북 김제시가 개최한 자연순환 새로보미 축제는 현수막 대신 칠판, 골판지를 이용한 사인전, 다화용기만 사용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충남 피크타임 페스티벌은 다화용기 사용으로 줄인 일회용품 수를 숫자로 표현하는 '버스팅스코어'와 탄소 배출량을 표시하는 '탄소 감축량 측정기'를 운영해 참가자들에게 직관적으로 변화를 보여줬다. 빛을 비추기 위해 노력하는 축제도 있지만, 그림자만 보이는 축제도 있다. 충남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홍성군에서 개최한 축제 13

개 중 10개에서 일회용품 사용량으로 확인됐다. 교통혼잡과 소음 문제도 여전하다. 올해 대전 0시 축제에 200만 명이 몰리며 교통마비를 겪었고, 수요의 1%도 못 미치는 주차 공간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샀다. 광명시에선 22시까지 지속되는 축제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올해 지자체가 계획한 1,170개 축제 중 29%인 340개 축제에서 다화용기를 사용한다. 이는 작년보다 무려 72% 상승한 수치다. 화려한 공연 후에 남은 쓰레기봉투가 점점 감소하고 있다. 축제는 지역을 알리는 창구인 동시에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자체와 시민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시점이다.

복적이든 인파, 신나는 음악, 지역 특산품을 손에 든 사람들의 웃음소리까지, 축제의 현장은 생동감으로 가득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떠난 후 남은 건 검은색 쓰레기봉투와 일회용품이다. 한때 지역을 살리는 효자였던 축제가 지금도 그 역할을 하고 있는지 묻게 되는 지점이다. 지역축제가 '세금낭비'라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지속 가능한 축제의 가능성은 화려한 불거리에서 주민들의 삶과 일상에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국 각지의 축제 현장에서는 단발성에서 지역민들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생활형 축제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서울시는 축제의 기획 단계부터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필요에 따라 연중 다양한 소규모 행사를 이어가는 방식을 2013년부터 도입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 절감

을 넘어 지역공동체의 연대감 증진과 지역의 문화적 자산으로 이어지는 평가가 나온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성은 주민의 '참여'에서 시작한다. 한때 관광객 유치와 소비 중심이었던 축제가 방문객과 주민이 함께 교류하는 장으로 변모하고 있다. 연간 여러 차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자연스럽게 화합하는 축제야말로 가장 빛나는 지역축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대규모 행사와 불거리가 아니다. 우리는 어떻게 어디서든 부담 없이 주민과 함께 소중한 경험을 만들어 갈 것인지 답해야 한다. 지역의 특색있는 문화가 자연스럽게 축제로 녹아들 때, 환경과 지속 가능한 축제도 저절로 따라올 것이다. 축제의 그림자가 열리고 빛이 더 밝아지는 순간이 오길 바라본다.

기고칼럼



현직에 있을 때, 기업체로부터 좋은 학생을 보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했다. 누구를 보낼까 고민한다. 성적이 좋아도 책임감이 결여된 학생은 추천하기 꺼려진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서도 샌다는 우리 속담처럼, 학교생활에서 책임감이나 성실성이 약한 학생을 보냈다가는 우리 학교 전체의 이미지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학생 추천과 관련해 기억에 남는 일이 있다. 언젠가 대형 출판사에서 좋은 여학생을 보내 달라기에, 실력도 있고 품성도 좋으며 책임감 있는 여학생을 보냈다. 4년간의 수업 태도, 팀발표, 동아리활동 등에서 충분히 검증된 학생이었기에 자신 있게 추천했다. 결과는? 얼마나 마음에 들었는지, 좋았었던 그 회사 대표가 나중에 이 학생을 아

내로 스카우트(?)했음은 물론, 그 후로 다른 졸업생을 데려가 장기간 근무 중이다. 그 시부상 때 조문을 갔더니, 두 아들을 나한테 인사시키면서,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 주신 교수님”이라고 소개해서 흐뭇하였다.

2024~25년 기업 채용 조사에서, 신입사원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 1위가 ‘책임감·성실성’이라고 한다. MZ세대의 ‘빠른 퇴사’, ‘책임 회피’ 담론이 커지며 기업이 더 민감해진 결과다. 그래서 ‘책임감’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테스트해, 이게 부족하다 싶으면,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탈락시킨다는 것이다.

책임감이 없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최근에 일어났다. 11월 중순의 신안 해상 대형 여객선 사고가 그것이다. 탑승

객 숫자가 무려 267명, 하마터면 세월호 때 같은 참사가 재발할 뻔 했으나 다행히 전원 구조됐다. 제주발 목포행 2만 6천 톤급 대형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가 압초와 충돌, 좌초했던 원인은? 항해사가 휴대전화화를 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경찰조사 결과다.

주지하듯, 항해사는 항로 감시, 충돌 예방, 항해 장비 모니터링의 책임이 있다. 사고지점은 좁은 항로 구간이라 주의가 필요한데도, 선장은 선장실에 들어가 쉬고 있었고, 항해사는 자동항법장치에 선박 조종을 맡긴 채 휴대폰으로 뉴스를 보다가 좌초당했다고 하니, 무책임의 극치다. 아무리 자격증을 갖추었다 라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여러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최근에 도스토옙스키 작 ‘카라마 조프가의 형제들’을 읽었다. 문형

배 대법관의 애독서이기도 한 이 작품 가운데 책임감 관련한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었다. 조시마 장로의 형 마르켈이, 폐병에 걸린 후 180도 사람이 바뀌어 사람들에게 한 말이 그것이다.

“나는 내 하인들의 하인이 될 거예요, 그들이 내게 해 주었듯 그렇게요. 어머니, 더 하고 싶은 말은 우리는 모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모든 일에 있어 죄인이라는 것.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그렇다는 거예요.”

그동안 하인들이 지주인 자신을 섬겨 주었으니, 이제 자신이 하인들을 섬기겠다는 말이다. 모든 사람과 모든 일에 대해 우리는 서로 죄인 즉 책임을 져야 할 존재라는 이 인식은 위대한 각성이다. 불교로 말하자면 깨달음이요, 기독교로 말하자면 중생의 체험이라 할 만하다. 맞다. 우리는 홀로 살 수 없고, 서

이복규 (영예교수/국문학)

만/파/식/적

‘사라진 것들’에 대하여

한때는 자연스러웠던 캠퍼스 풍경들이 어느새 자취를 감췄다. 광방 문 앞의 소음, 벽면을 가득 채운 대자보, 선후배 간 교류가 활발했던 새내기 배움터, 졸업 시즌에 불던 현수막까지. 스쳐 지나던 일상의 일부지만, 이 작은 모습들이 사라진 자리에 남은 공백은 의외로 크고 선명하다. 그리고 그 빈자리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변화의 흐름을 조용히 보여준다.

대자보 앞에서 멈춰 선 순간과 과방을 드나들며 생기던 자연스러운 대화는 단순한 정보 획득의 과정이 아니었다. 공간을 오가며 우연히 만나 서로 대화를 나누고 부딪히며 관계를 쌓던 시간이었다. 그러나 디지털 전환은 이 물리적 동선을 알림창 하나로 대체했고, 사람들과 부딪히며 서로의 감정을 읽던 경험은 점점 줄었다. 편리함을 얻은 대신 공동체는 자연스레 얕아지고, 대학 생활은 점점 더 개인적인 영역으로 축소되는지도 모른다.

대학가에서 사라진 것은 이러한 모습만이 아니다. ‘기다림’도 이미 희미해졌다. 식당 줄에서 메뉴를 고민하던 순간, 도서관 자리를 잡으려고 일찍 움직이던 때, 프린터 앞에서 줄이 줄어들기를 바라던 시간. 이런 기다림은 효율과 속도 앞에서 설 자리를 잃었다. 이제 대부분은 앱 예약이나 혼잡도 확인 등의 시스템이 대체한다. 중요한 것은 그 시간 자체가 아니라, 그 시간을 건넌 채 배운던 작은 인내와 리듬이었는데 말이다. 효율이 중심이 되며 기다림은 ‘낭비’가 됐고, 즉시성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회에서 ‘기다림 줄이는 능력’은 점점 불필요한 기술로 취급받는다.

그럼 기다림 속에서 배운던 인내, 양보, 순서의 감각들은 어디에서 배울 수 있을까? 길에서 서로 걸음을 조금 양보하는 일, 엘리베이터 문을 잡아주는 것, 공공장소에서의 배려와 조용한 협력. 모두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 압박 속 이런 행동들은 ‘굳이?’라는 말로 치환된다. 빠르게 돌아가는 사회는 점점 더 개인화되고 타인을 의식하는 감각은 열어진다. 작은 불편을 함께 감수하며 생겨나던 공동체의 온기가 사라진 자리에는 어느덧 ‘내 일만 처리하면 된다’는 태도가 자리 잡았다. 대학에서 사라진 작은 풍경들은 사실 이런 사회적 흐름의 축소판일지도 모른다.

변화는 대학과 학생 사이에도 나타난다. 과거에는 대자보·토론회·학생총회 등 다양한 의견 조율의 장이 존재했다. 그러나 이제 대학의 정책은 빠르게 전달되고, 학생 의견은 절차적 형식을 거칠 뿐 실제 반영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리가 마련되도 아예 참석조차 하지 않거나 자리만 채우는 학생들도 대부분이다. 그 속에서 학과의 통제함, 폐과 결정, 예고 없는 제도 변경은 학생들의 의견을 포함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추진되곤 한다. 학생 사회의 권력은 약해졌고, 대학은 더 이상 충분히 기다려주지 않는다. 사라진 것 단지 대자보나 회의가 아니라, ‘함께 결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합의를 만들어가는 문화’ 자체다.

이처럼 사라진 작은 풍경들은 단순한 과거 회상이 아니다. 그 빈자리는 오늘의 우리가 무엇을 잃고 있는지를 선명하게 비춘다. 효율과 속도를 우선한 사회에서 편리함을 얻었지만, 공동체성과 인내, 배려 같은 기본적인 감각들을 잃어가고 있는 지금. “우리는 무엇을 얻었고, 무엇을 잃어버렸는가?” 그리고 “사라진 것들을 다시 가져올 수 없다면, 그 빈자리에 새로운 가치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 기자의 눈 |

따뜻한 커피, 차가운 경계선

강의실 책상 위엔 시험 기간의 필수품처럼 커피 한 잔이 놓여 있다. 하룻길마다 마주치는 카페 안에는 노트북을 펼쳐 작업하는 사람들, 커피를 음미하는 이들로 가득하다. 거리마다 자리한 카페는 음료 판매를 넘어 남한의 일상 그 자체가 됐다.

그렇다면, 북한에서도 이러한 커피 문화가 존재할까? 주민들은 과연 카페에서 커피를 즐길 수 있을까? 북한에서 일반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피숍이 등장한 것은 2010년 이후의 일이다. 이전에도 평양의 외국인 전용 호텔이나 고급 시설 내에는 커피숍이 존재했지만, 주민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북한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대체로 외국

과 접촉할 기회가 있는 무역 일꾼, 유학생, 당 간부 등 사회 상층부가 중심을 이룬다. 일반 주민에게 커피가 알려진 계기는 개성공단이었다. 남측에서 근로자들에게 나눠주던 인스턴트 커피믹스가 장마당을 통해 퍼지면서, 북한 사람들도 ‘커피 맛’을 처음 경험하게 됐다. 당시 커피믹스는 ‘남조선 막대 커피’로 불리며 부의 상징이 됐다.

북한 내 첫 서양식 커피 전문점은 2011년 평양 호텔에 문을 열었다. 이후 2012년 김정은이 부인 리설주 평양의 외국인 전용 호텔이나 고급 시설 내에는 커피숍이 존재했지만, 주민들이 접근하기란 쉽지 않았다.

북한에서 커피를 즐기는 사람들은 여전히 제한적이다. 대체로 외국

산, 청진, 평성, 나선 등지에도 커피숍이 생겨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라떼 아트를 선보이는 바리스타도 등장했다.

북한의 ‘3대 카페’로 꼽을 수 있는 곳 중 하나인 조선중앙역사박물관 내 ‘은방울커피점’은 시그니처 메뉴로 ‘원나커피(비엔나커피)’를 선보이며, 지방에서 마시러 찾아올 정도로 유명하다. 메뉴명은 북한식으로 변형돼 있다. 예를 들어 ‘얼음 물 든 아메리카노’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음물 든 카푸치노’는 아이스 카푸치노를 의미한다[참고: 동아일보].

남북한의 커피 문화는 모두 ‘근대화된 삶의 상징’이라는 공통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남한의 커피가

‘일상 속 여유’를 상징한다면, 북한의 커피는 여전히 ‘특권과 계급’을 드러내는 상징이다. 북한의 커피 문화는 단순한 생활 변화가 아니라, 사회적 지위와 문화적 욕망이 교차하는 지점에 놓여 있다.

남한 사람과 북한 사람이 맛보는 커피의 쓴맛은 같지만, 이들의 체계는 완전히 다르다. 2024년 김포의 예기봉 평화 생태공원에 들어선 ‘민간인 통제구역 내 첫 스타벅스’는 이를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한강과 임진강, 예성강이 만나는 그곳에서, 남한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며 망원경 너머로 북한의 개공군을 바라본다. 통일을 염원하는 공간이지만, 그 장면은 어딘가 묘한 감정을 남긴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북한 주민

들의 일상을 내려다보는 모습은 마치 동물원을 관람하는 듯한 이질감을 준다. 분명 그런 의도로 지어진 공간은 아니겠지만, 그 풍경은 한반도의 현실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그들은 아마 단순히 북한의 ‘본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남과 북을 가르는 경계선을 확인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커피를 마시며 망원경으로 북한을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는 어쩌면 서로를 향한 이해가 아니라, 거리감을 마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김나연 기자 (nykim0130@skuniv.ac.kr)

| 기자의 눈 |

나의 다이어트 일지 - 다이어트 강박증까지의 여정

본 기자는 20살 때까지 신체적인 콤플렉스에 시달렸다. 평균 키도 되지 않았으며, 몸무게는 95kg까지 나갔다. 이로 인해 학창 시절 내내 놀림의 대상이었고, 폭언도 많이 들었다. 당시에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저 먹는 것이 너무 좋았을 뿐이었다.

성인이 될 무렵, 부모님은 매번 트레이닝복만 입는 내 옷차림을 보고 백화점으로 데려갔다. 하지만 사이즈가 맞지 않는 일질 없었고, 상의는 살에 눌러 핏이 엉망이었다. 그날 이후 처음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던 중 TV 프로그램에서 2PM의 멤버 이준호가 철저하게 몸 관리하는 모습이 방영됐다. 그의 노력과 건강한 신체를 보며 존경심이 우러러 나왔다. 이를 토대로 본격적으로 다이어트를 하고자 결심했다.

먼저, 하루에 다섯 끼를 먹던 습관

을 고치기 위해 집 안의 모든 군것질 거리를 버렸다. 식사는 하루 두 끼로 줄였고, 매일 두 시간씩 걷기와 수영을 병행했다. 초반에는 식욕 억제가 너무 어려웠지만, 2주 정도 꾸준히 실천하니 몸은 점차 적응했다.

체중은 눈에 띄게 빠지기 시작했고, 두 달 만에 10kg를 감량하자 주변 지인들은 모두가 당황했다. 다이어트를 시작할 때만 해도 대부분은 ‘급방 포기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시선은 나를 더 독하게 만들었다.

처음 목표는 78kg이었다. 다이어트 관련 유튜브 영상과 부모님의 도움으로 식단에 대한 개념이 생겨, 식단과 운동을 같이 했다. 그 결과, 다섯 달 만에 체중은 74kg으로 줄었고, 목표를 뛰어넘었다.

비만에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과체중이었다. 20kg 넘게 감량하니 육식이 생겼다. 이번에는 67kg

을 새로운 목표로 잡았다. 식단과 운동이 습관화되면서 급방 빠질 줄 알았다. 하지만 신체적 변화이 온 건지 1kg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 시점에서 입대를 하게 됐다. 입대 전 67kg으로 감량해 최고의 몸 상태로 전역하자고 다짐했다. 훈련소에서 개인 정비 시간마다 맨몸 운동을 매일 반복했다. 더불어, 초코파이나 각종 부식이 나올 때마다 동기들에게 나눠주며 스스로를 엄격히 통제했다.

훈련소 수료 후 첫 외박 때, 몸무게를 재보니 67.2kg으로 목표를 달성한 순간이었다. 자대 배치 후에도 67kg을 유지하려고 끊임없이 관리했다. PX는 일질 가지 않았고, 맨몸 맨몸 운동을 일상화했다. 하지만 자대 배치 후 일병은 잦은 사역과 축구 등 고강도 활동이 이어졌음에도 체중 증가가 두려워 제대로 에너지 보충을 하지 않았다.

비만이었던 시절의 트라우마는 결국 ‘다이어트 강박증’으로 이어졌다. 군 복무 후반으로 갈수록 식량이 지나치게 줄었고, 말년 휴가 직전 체중은 52kg까지 떨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살이 빠지자 놀려 있던 키가 4cm 가까이 자랐다. 하지만 몸은 극도로 말라 있어, 오히려 중량이 필요했다.

전역한 지 7개월이 지나고 글을 쓰는 지금도 다이어트 강박증은 여전히 있다. 일주일에 5번은 식단과 운동을 하고, 2번은 친구들과 만나 자유식을 먹는다.

저체중과 저혈압, 저혈당을 앓고 있기에 체중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조금이라도 체중이 오르면 과거로 돌아갈 것 같아 불안감이 밀려온다. 신문사 회식 때도 다른 기자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이 든다. 초반에는 회식 때 곱할 어려울 먹었지만, 최근 들어 강박증이 더 심해지면

서 쉽게 음식에 손이 가지 않는다.

이 글을 통해 신문사 기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 강박증이 회복될 기미가 보이면 기자들과 즐거운 회식 시간을 가지고 싶다. 다이어트는 내 살을 180도 바꿨다. 다이어트 후 더 이상 놀림을 받지 않고 스스로를 믿게 됐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강박이라는 후유증도 남았다.

목표를 향한 노력은 박수받아 마땅하다. 하지만 이 노력이 스스로를 해칠 위험이 있다면 멈출 용기도 필요하다. 다이어트는 내게 많은 가르침을 줬다. 그리고 나는 지금도 그 교훈 속에서 균형을 찾아가고 있다.

김호성 기자 (hosung@skuniv.ac.kr)

| 수습의 눈 |

독서, 행위를 넘어서 트렌드로 자리 잡다

작년 10월,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한국문학의 위상을 전 세계에 알렸다. 이에 다들 하나둘씩 책을 구매하면서 마음의 양식을 쌓는 것은 하나의 유행이 됐다. 수상 소식 이 뜨거운 감자였던 짧은 시기, 유행으로 지나갈 것 같던 독서는 미디어 노출에 지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휴식 공간이 됐다. 그리고 어느새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를 잡았다.

최근 독서 트렌드는 단지 책을 읽는 행위를 넘어서 자신을 드러내는 수단이 됐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형태인 ‘텍스트랩’은 읽고 있는 책이나 가장 마음에 들었던 구절을 소

셜미디어에 올리는 것이다. 친구들을 모아 서로 고른 책을 읽고 책 위에 자유롭게 감상이나 코멘트를 남기면서 진행하는 교환 독서의 양상으로도 자주 나타난다. 텍스트랩은 말 그대로 책을 읽는 것이 더 이상 고리타분하지 않고 새로운 소통의 활로가 되거나 자신을 어필할 수 있는 ‘힙한 일’이 된 것이다.

필자 역시 이 트렌드의 흐름을 놓치지 않고 교환 독서를 진행해 보았다. 교환 독서에 관심이 있는 친구들을 모아 각자 읽고 싶은 책을 하나씩 고른 뒤 2주에 한 번씩 서로의 책을 교환해 읽었다. 필자는 기존에

인상 깊게 읽었던 SF소설을 선택했다. 이미 읽어 본 책이더라도 책의 활자를 눈으로 훑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마다 코멘트를 달고, 내 생각을 적어보니 책이 새롭게 느껴졌다. 서점에 진열된 책과는 다른 느낌과 친구들의 말들이 기록되는 우 리만의 책이 생기는 것 같았다.

서로의 관심 분야가 다 다른 친구들이 모였던 만큼, 자주 손이 가지 않는 분야의 책을 접해볼 기회도 생겼다. 자주 찾아보지 않는 분야인 만큼,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교환한 책 속에서는 친구의 코멘트와 생각이 들어있어 재미있게 읽을

수 있었다. 친구의 생각을 보며 내 생각도 적어 보며, 친구와 어떤 부분에서 의견이 다르거나 같은지 보는 즐거움도 있었다.

그리고 교환 독서를 하는 과정에서 텍스트랩의 중요한 요소, 읽은 책 공유하기는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소셜미디어에 친구들과 교환 독서를 하는 모습, 인상 깊었던 부분에 코멘트를 단 부분을 찍어서 공유했다. 그 덕분에 교환 독서에 참여하지는 않았어도, 같은 책을 읽은 친구들과도 책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다.

물론 텍스트랩에 대해 ‘어차피

SNS 자랑의 일종에 불과하다’는 반감 어린 의견을 가진 사람도 있다. 하지만 텍스트랩이 독서의 즐거움을 찾고 지적 양식을 쌓아가는 흥미로운 시도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을 읽으며 찾은 ‘예쁜 구절’은 그 구절이 예쁘다고 느껴진 이유가 있을 것이고, 그 이유는 책을 읽음으로써 비로소 완성된다. 그렇게 읽은 책은 사라지지 않는다. 자랑과 양식 쌓기를 동시에 할 수 있다면 오히려 좋은 일이 아닌가.

김서연 수습기자 (kimsey050317@skuniv.ac.kr)

사설

‘지방대 혁신’, 글로벌대학과 RISE로 충분인가

강원대-강릉원주대 통합, 전남대, 제주대 글로벌대학 선정 등 지방 대학에 새로운 바람이 불고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라이즈(RISE·지역 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와 글로벌대학 30 정책 때문이다. 그러나 과연 이 정책이 지방대의 혁신을 가져올 수 있을까?

라이즈는 지자체 주도로 지역발전과 연계한 대학 지원으로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는 체계다. 글로벌대학 30 정책은 비수도권 30개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해, 혁신 사례와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시키는 것이 목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45년 기준 만 18세 인구 현재의 절반인 23만 명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또한, 최근 15년간 전국 대학 입학정원이 12만 명 감소했다. 특히 약 80%에 달하는 정월 감소이 지방대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함으로써 ‘정월 감소’라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엔 어려움이 있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작성한 ‘윤석열 정부 지방대학 정책 진단’에 따르면, 라이즈 관련 예산의 실제 증액은 2천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2024년 8월 교육부는 “라이즈 관련 예산을 8천억 원 증액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의대 교육혁신과 늘봄 지원 비용으로 사용돼 지방대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지원은 약 1천억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처럼 정책의 투명성 및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원인을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수도권 중심 정책과 장기 정책의 비일관성이다. 국내 100대 기업 중 91%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어, 산학협력 정책을 펼쳐도 기반 산업 없는 지방에선 한계를 드러낸다. 이마저도 정권이 바뀌면서 지속되지 못해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대학 성장에 대한 정책에서 시작된 균형발전 기조는 이후 정권 변화 속에서 지속성을 잃었다.

라이즈와 글로벌대학은 개별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될 수 있어도 근본적인 지방대 위기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여러 대안을 통해 혁신을 도모해야 한다. 여기엔 수도권·지방 정권 공유제, 성인학습자·외국인 유학생 확대 등이 있다.

정부가 수도권 대학의 모집 정원 일부를 지방 학생 전용으로 배정하면, 지방 학생들에게 우수한 교육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은 복잡하게 얽혀있다. 수도권 학부모는 역차별도 느끼고, 일부 의과대학 교수도 “의무 선발 비율이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자리·인프라 모두 수도권 중심이다 보니 정원 공유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편, 영진전문대는 성인학습자를 2년 만에 2배 증가시키고, 유학생을 4명에서 350명으로 증가시키는 등 학령인구 감소를 조금이나마 상쇄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8월 시행되는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법’의 운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 법은 경영 위기에 놓인 대학의 재정 진단, 구조개선 계획 등을 규정한다. 정부가 취지에 맞게 자발적 회생을 돕고, 학생 보호와 지지 체 지원까지 함께한다면 지방대 혁신은 목표가 아닌 현실이 될 것이다.

심화평 수습기자 (marksim@skuniv.ac.kr)

오늘의 책

회색인간 김동식



▲ 출처 : 교보문고

“아무리 물거품이 날리고 물어도 사람들은 회색이 아니었다.” 『회색인간』은 2017년에 출간한 김동식 작가의 소설집이다. 김 작가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글을 연재하기 시작했다. 그의 단편 글들은 커뮤니티 이용자들에게 높은 관심을 받았고, 이런 열기에 힘입어 작가의 글 중 처음 발행된 작품집이 바로 『회색인간』이다. 작가는 어김없이 마주하는 일상 속 묵직한 거짓말을 첨가한다. 만약 지저(地底) 인간에게 납치당한다면? 인간과 인조인간이 공존하는 사회라면? 손가락이 6개인 신인

류가 탄생한다면? 식인 빌딩이 나타난다면? 등 현실 세계 속에서는 상상하지 못할 설정을 통해 이야기를 전개한다. 기괴한 책으로 보이지만, 책은 인간이 비정상적인, 비일상적인 상황에 놓였을 때 적나라한 인간의 양태를 보여준다. 짧은 이야기들을 읽으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에 비웃고 슬퍼하고 분노하게 된다. 『회색인간』 속 상황들은 평범하지 않지만, 등장인물들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다. 어쩌면 비정상적인 상황에 놓인 허구의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겪는 거짓말 같은 일상을 비추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작가가 인상 깊게 읽은 부분은 ‘무인도의 부자 노인’ 편이다. 이야기 속 사람들은 외딴섬에 조난된다. 식량이라곤 식품연구원 캐리어 속 통조림 몇 개가 전부였다. 통조림을 나눠 먹으며 구조대를 기다렸지만, 그 시간은 예상보다 길었다. 식량이 부족해지자 조난자들은 회의를 통해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노인에게 식량을 배분하지 않기로 한다. 그러자 노인은 “그 통조림 하나를 천만 원에 사지”라며 제안한다. 노인은 소수 회사 회장이었다. 이 말을 들은 조난자들은 의식주가 급박한 상황에 돈으로 해결하려는 노인의 모습을 보고 코웃음을 쳤다. 노인은 조난자들이 증인이나 사회에 살아

들이간다면 현금을 준다고 설득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노인의 제안에 사람들은 수긍했다. 이 일로 조난자들은 살기 위해서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몸부림쳤다. 더 열심히 사냥하고 집을 짓고 공예품을 만들어 팔았다. 마침내 구조대가 도착해 그들은 구조됐다. 하지만 노인의 말은 전부 거짓이었다. 노인이 살기 위해 한 거짓말들은 아이러니하게도 조난자들 사이에서 질서를 확립하고 무인도 생활을 버티게 했다. 이처럼 『회색인간』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통해 다시금 생각하게 만든다. 필자는 이 외에도 협곡 사이로 조난된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해 식인하는 ‘협곡에서의 식인’ 편이 기억에 남았고, 멸망한 지구 속 생존자 단체가 소녀와 소년 중 누구를 피난처에 받아들일지 결정하는 ‘소녀와 소년,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편도 인상 깊게 보았다. 두 이야기는 마지막에 상상도 하지 못할 반전을 선사한다. 책은 24가지 단편으로 구성돼 빠른 전개로 보인다. 또한, 단순한 서술체로 이야기를 풀어갈 몰입도를 높인다. 이런 점으로 책을 막 접하거나, 책을 읽고 싶지만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에게 읽어보길 권한다. 이요한 수습기자 (yohan2006lee@skuniv.ac.kr)

오늘의 전시회

다름을 나누는 친밀한 대화 - 친밀한 대화



친밀한 대화는 윤정민 작가와 하성욱 작가의 플라보로 진행된 전시회다. 코디네이터에 따르면 이 전시장에 두 점의 대화가 존재한다. 첫 번째 접은 바로 접근하는 방식도, 사용하는 주재료도 다른 두 사람의 대화다. 두 작가 모두 경희대 조소과를 졸업했지만, 윤정민 작가는 석사 과정을 하성욱 작가는 사업을 하며 각각의 위치에서 경험을 쌓았다. 그러나 긴 시간 서로 교류하며 조각이라는 매체를 중심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서로의 생각을 돌아보기도 했다. 두 번째 접은 바로 각각의 재료와 오래도록 나뉘던 대화다. 두 작가는 저마다의 삶에서 만난 재료를 기반으로 지금껏 겪은 시행착오와 그 기록을 마음껏 표출했다. 철을 주재료로 삼은 윤정민 작가는 자른 후 남은

철판을 단조하고, 이어 붙여 조각의 유연성을 극대화했다. 눈·코·입을 직접 뚫어 제작하는 공정을 통해 표정을 한층 더 모호하게 만들어 관람자에 따라 색다른 감정을 느끼도록 만들었다. 가족을 주재료로 삼은 하성욱 작가는 건설 현장 노동자로 일하며 경험한 도시의 속살과 뼈대를 가족으로 표현했다. 생계를 위한 연구의 대상이었던 가족은 작가에게 다양한 감정을 제공해 주요한 소재로 사용됐다. 작품의 몸체는 버려지는 내피와 자투리 표면이 이용돼 인공물도 자연물도 아닌 모호한 구조를 보여준다. 또 종이와 혼합 시멘트를 적재적소에 활용한 작가의 작품에서 폐가족이 자신만의 독특한 존재를 이뤄 가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작품들의 제목 또한 직관적이면서 모호한 느낌을 준다. △식물 △플 △얼굴 △벽 너머 각진 것 △플 △매스 △발차형 생김 것 △어쩌다 만든 것 등 실제로 작품과 마주하면 미묘하면서도 적극적인 느낌을 준다. 결국 두 작가는 서로 그리고 각각의 재료와 겹겹이 쌓인 대화를 나눈다. 단단하지만

유연성이 살아있는 철과 유연하지만 단단함이 깃든 폐가족은 서로 그리고 또 각각의 대화를 한다. 두 작가와 작품 모두 상반되지만 동시에 동일한 점을 지니며 서로를 인정해 나가는 친밀한 대화가 끊임없이 울려 퍼지는 것만 같다. 전시장이 지하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도 친밀한 대화에 더욱 몰입하게 해주는 요소 중 하나다. 긴 계단 끝에 있는 전시장에서 작품들은 지상과 격리돼 조용함이 머무는 공간에 저마다의 존재로 소리를 만들어 방문자를 환형하는 느낌을 준다. 당신의 존재가 공간의 파문을 일으켜도 그들의 친밀한 대화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대화가 필요할 때 전시회에 방문해 보는 것은 어떨까? 어느 샌가 사방에서 공명하는 대화의 물결에 몸을 맡긴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유승윤 수습기자 (organiceggfry@skuniv.ac.kr)

- 전시기간 : 2025. 11. 07. (금) ~ 2025. 12. 27. (토)
· 전시장소 :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51길 20, B1 (01833)
· 관람시간 : 화 ~ 토, 10:00 ~ 19:00
· 관람비용 : 무료

오늘의 장소

명명한 겨울, 별 보러 가자 - 별마로천문대



봉래산 정상, 해발 799.8m에 위치한 별마로천문대는 시민천문대 중 최상의 관측 조건을 가졌다고 평가받는다. 별마로란 이름은 ‘별을 보는 고유한 정상’이라는 뜻으로 천문대에서 관측할 수 있는 ‘별’과 정상을 뜻하는 마루의 ‘마’, 고유할 ‘로’의 합성어다. 현재는 봉래산 명소화 사업으로 인해 개

인 차량 및 단체 관광버스, 이륜차, 도보 등을 이용한 방문은 금지되고 있다. 예매자가 천문대에 가려면 진입로 통제가 해제되기 전까지는 셔틀버스 승강장에서 셔틀버스를 탑승해야 한다. 운이 좋게 취소 표나 빈자리가 있으면 현장 예매도 가능하다. 기자가 갔을 때는 대형 버스가 팍팍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고, 아슬아슬하게 현장 예매에 성공한 사람들도 볼 수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20분쯤 올라갔을까, 쏟아지는 별들이 버스에서 내린 우리를 반겨줬다. 자세히 보니 별이 아니라 나무에 갇힌 반짝이는 작은 조명들이었지만 신비로운 세계에 온 것만 같아 마음이 설레었다. 별마로천문대는 8.3m 돔 스키투린에 가상의 별을 투영해 날씨에 상관없이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는 천체투영실이 있다. 김나연 기자 (nykim0409@skuniv.ac.kr)

자는 이곳에서 별자리 찾는 방법, 로마 신화 등의 설명을 들으며 돔에 표현된 9,500여 개의 별을 감상했다. 또, 지름 800mm 주망원경과 여러 대의 보조망원경도 있어 달이나 행성, 별을 관측할 수 있다. 기자가 간 날은 주망원경을 이용한 관측은 진행되지 않았고, 보조관측실에서의 관측만 진행됐다. 날이 흐려 4개의 보조망원경 중 2개는 달, 하나는 토성, 나머지 하나로는 별을 간신히 관측할 수 있었다. 관측도 재밌으나 산 정상에 위치한 만큼 땀 뻘린 시야로 내려다보는 영월의 야경도 천체관측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준다. 별을 좋아한다면 꼭 한번 들려보길 추천한다. 주 소 :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 영월읍 천문대길 397
· 운영시간 : 하절기(4월~9월) - 15시~23시 / 동절기(10월~3월) - 14시~22시
· 관람비용 : 일반 7,000원, 청소년(중·고등/군인(사병)) 6,000원, 어린이(7세~초등학교) 5,000원, 경로(만 65세 이상) 3,500원

오늘의 드라마

900년의 형벌, 그리고 마지막 소원 - 다 이루어질지니 (2025)



▲ 출처 : MBC

명문대 수석 입학과 조기 졸업이라는 패거리를 이룬 기가영. 그러나 동년 사람들의 시선은 마냥 곱지 않다. “저게 거저야. 반사이코 인품 장애 거시기.” 기가영은 무덤덤하게 정정한다. “반사회적 인격장애요, 할머

니.” 엄격한 할머니의 훈육 아래, 기가영은 단지 물과 루틴 속에서 철저히 평범한 삶을 연습했다. 그것은 그녀가 반사회적 충동을 억제하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매일 4·14·24일, ‘4’로 끝나는 날엔 기가영은 반드시 심을 가지는데, 4일은 심해 스쿠버, 14일에는 등산, 24일은 공방에서 관을 만든다. 취미처럼 보이는 이 루틴은, 사실 할머니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녀가 행했던 물과 루틴도 사라지면서 반사회적 행동이 나올까 봐 그것을 막기 위한 죽음을 예방 연습한 것이었다. 심해 장비 고장이나, 절벽 실족처럼, “자연사에 가까운 죽음”을 시뮬레이션하며, 세상에 위협이 되기 전에 스스로 사라질 방법을 계산해 온 것이다. 홀로 떠난 두바이 여행, 자신을 버린 모친을 마주한 기가영은 모래 설원 위에서 울분을 토해내다 램프에 걸려 넘어지고 만다. “누가 장난친 거야!” 짜증을 퍼붓던 순간, 900년 봉인되어 풀려난 지니를 만난다. “너구나, 그때 나를 가둔 흙덩이!” 전생애 자신을 봉인했던 여인의 환생, 기가영. 램프의 3가지 소원을 요구받는 순간부터 둘의 관계는 묘하게 꼬이기 시작한다. 지니는 신과의 내기로 의로운 소원을 빈

인간을 만나면 벌을 받는다. 그래서 기가영이 타락한 소원을 빌도록 유도한다. 그러나 기가영은 보통 인간이 아니다. 바로 사이코 패스였고, 지니는 감정으로 유혹할 수 없는 상대 앞에서 애를 먹는다. 기가영은 마침내 첫 번째 소원을 빈다. “인간은 반드시 타락한다는 걸 증명해.” 다섯 명의 소원을 대신 들어주고 그중 셋 이상이 타락하면 남은 소원과 목숨을 내놓겠다는 도박. 두 번째 소원으로 모든 기억이 평생 곁에 두기 위해 쪼개 만들어 달라고 빈다. 그러나 세 번째 소원을 앞두고, 소원을 모두 쓰면 지니를 포함한 모든 기억이 사라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기가영은 망설이기 시작한다. 지니 또한 복수의 시작이었던 마음은 가영과 함께하면서 점차 애착으로 물들어 간다. 두 존재는 서로를 이해하면서, 동시에 마지막 선택의 무게를 온전히 느낀다. 이제 남은 건 마지막 소원, 기가영은 의로운 소원을 빌어 지니를 벌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타락의 소원으로 지니를 해방시킬 것인가. 지니는 900년의 형벌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 오연우 수습기자 (pink3728@skuniv.ac.kr)

오늘의 음악

마지막 페이지 위에 놓인 멜로디

바쁘게 달려온 시간이 아쉬움과 설렘을 남긴 채 저물고, 어느새 달력은 마지막 장만을 남겨두고 있다. 한 해의 끝자락에 서면, 지나온 날들이 문득 마음속에 차례로 떠오른다. 지나온 감정을 정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줄 수 있도록, 새로운 내일을 힘차게 나아가 세 곡을 준비했다.



▲ 출처 : 애플뮤직

♪ 〈Heroine〉 - IVE
“Heroine 이 세상 속에 Heroine 단 하나뿐인 그쯤 시련도 필요해 내겐 necessary 그깟 상처론 어렵잖아 nah I don't care it”

우리는 종종 타인의 시선에 휘둘리고, 자신을 흔들리게 만드는 말들 앞에서 주저한다. 이 곡은 시련과 비판도 결국 나만의 이야기를 완성하는 요소이며, 타인의 기준에 맞춰 변하지 않겠다는 당당함을 드러낸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축을 세우게 되며, 결국 이야기의 주인공은 언제나 ‘나’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떠올리게 한다.



▲ 출처 : 애플뮤직

♪ 〈하이웨이〉 - 하현성
“지나쳐버린 건 그것대로 내버려두고 알지 못했던 건 모르는 게 나올 수 있으니까 멀리 달리다 보면 어딘가 여긴 그래도 전보단 나를 테니까”

가능하기 어려운 삶의 고속도로 위에서, 불안과 고독을 안고 묵묵히 페달을 밟는 우리의 모습이 떠오른다. 이 곡은 목적지에 닿지 않았더라도, 달리는 순간 자체가 우리를 앞으로 이끄는 힘을 느끼게 한다. 불안과 해방감이 교차하는 순간 속에서 나만의 속도로 여정을 이어갈 용기를 건네는 노래다. 송재이 수습기자 (winsong83@skuniv.ac.kr)



▲ 출처 : 애플뮤직

♪ 〈High Hopes〉 - Panic! At The Disco
“They say it's all been done but they haven't seen the best of me So I got one more run and it's gonna be a sight to see”

우리는 익숙함이 주는 편안함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며 제자리에 멈춰 서곤 한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던 도전의 욕구는 결국 다시 발걸음을 앞으로 내딛게 만든다. 이 곡은 쉽게 포기하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가장 높고 대담한 목표를 향해 다시 뛰어오를 용기를 부여한다.

오늘의 스포츠

'대기록 달성'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배드민턴 세계 1위 안세영(23, 삼성생명)이 슈퍼 1000과 슈퍼 750으로 구성된 월드투어 상위시리즈에 속하는 10개의 대회에서 전부 우승을 차지하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세계배드민턴연맹(이하 BWF)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금까지 단 한 명의 단식 선수도 10개의 대회를 모두 우승한 적이 없었다”며 “이제 겨우 23살밖에 안 된 안세영이 새로운 기록을 세웠다”고 극찬했다. BWF는 상위 규모에 따라 국제대회를 슈퍼 1000, 슈퍼 750, 슈퍼 500, 슈퍼 300, 슈퍼 100으로 구분한다. BWF가 지정하는 ‘톱 커미티드 선수’에 속하는 안세영은 부상 등의 특별한 이슈가 없다면 슈퍼 1000과 슈퍼 750에 반드시 참가해야 한다. 총상금 130만 달러의 슈퍼 1000에는 △전영 오픈 △중국 오픈 △말레이시아 오픈 △인도네시아 오픈이 있다. 총상금 95만 달러의 슈퍼 750에는 △인도 오픈 △일본 오픈 △중국 마스터스 △덴마크 오픈 △프랑스 오픈 △싱가포르 오픈이 있다. 안세영은 2019년 프랑스 오픈을 시작으로, 2021년 인도네시아 오픈, 2023년 전영 오픈, 중국 오픈, 일본 오픈, 싱가포르 오픈, 인도 오픈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지난해에는 말레이시아 오픈, 중국 마스터스에서 정상에 올랐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덴마크 오픈에서 정상을 기록하며 10개의 대회에서 모두 우승을 차지했다. 안세영은 중학교 3학년이던 2017년, 15살의 어린 나이로 태국 마르쿠를 달았다. 2년 뒤인 2019년, 17세의 나이로 슈퍼 750 프랑스 오픈에서 2016년 리우 올림픽 챔피언

인 카롤리나 마린(스페인)과 당시 세계 2위 야마구치 아카네(일본)를 누르고 우승을 차지하며 세계 배드민턴계에 자신의 이름 써 자를 각인시켰다. 2023년에는 생애 첫 세계 선수권 우승을 따냈다. 이어 한 달 뒤에 열린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는 여자단체전, 여자 단식 연속 금메달로 2관왕을 달성하며 배드민턴 세계 1위에 등극했다. 지난해 파리 하계 올림픽에서는 사상대 만 위에 올라꿈에 그리던 올림픽 금메달까지 품었다. 올해 안세영은 BWF 슈퍼 1000의 4개 대회 중 3개 대회에서 우승하고, BWF 슈퍼 750의 6개 대회 중 5개 대회 금메달을 휩쓸며 세계 1위로서의 면모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난해 18월에 개최한 호주오픈에서 우승해 시즌 10승을 달성, 2023년 자신이 세운 ‘BWF 단일 시즌 여자 단식 최다 우승(9회)’ 기록을 새로 썼다. 나아가 이달 예정된 BWF 월드투어 파이널스에서 우승을 이룬다면, ‘BWF 단일 시즌 최다 우승(11회)’ 기록(타이)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한다. 안세영의 “내가 가는 길이 곧 역사”라는 말의 의미가 점점 선명해지고 있다.



▲ 출처 : 안세영 인스타그램

또한 안세영은 지금 슈퍼 1000과 슈퍼 750, 10개 대회를 두 차례 이상 우승하는 최초의 선수 자리를 노리고 있다. 안세영은 현재 올해 부상으로 기권한 중국 오픈과 10월에 우승한 덴마크 오픈을 제외한 나머지 8개의 대회에서 두 번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특히 안세영의 현재 기량을 보면 내년에도 중국 오픈, 덴마크 오픈도 충분히 우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높다. 새로운 대기록을 향한 안세영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김서연 수습기자 (kimsy050317@skuniv.ac.kr)